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火)

比率主義固執은 列强의 體面損傷

英國은各國政府가一九四二年現在 海軍力保有量宣言의方式에基하야 海軍制限達成方針

英海相의重大言明

【倫敦二十二日發聯合】 英國下院은 二十二日午後의 質問時間에 際하야 海相몬셀氏는 海軍制限方式으로 比率主義의 原則을 廢棄하겟다는 旨를 言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몬셀英海相

海軍力에關한 比率主義는 華盛頓、倫敦兩海軍條約上의 基礎原則이나 一部諸國政府는 劣勢海軍力을 受諾하는것으로써 國家的矜持를 傷하는것이라고 指摘하야 所謂 海軍力에 關한 比率主義는 이제 廢棄할수박게업시되엇다 英國政府는現在各海軍國政府가 一九四二年現在의 自國의 海軍力保有量을 宣言하는 方式에基하야 制限條約을 達成할方針이다

海相의 言明은 如左하다

一、英國은 將來의 國際海軍縮을 歸함에 當해서는 從來의 比率主義를 버려도 조타고 생각하고잇다

一、英國이 此際에 列國에 向하야 慫慂 하는바는 各國이 各其必要라고 信하는 保有量을 自守的으로 互相宣言하자는것이다

即 吾人은 이때까지와가티 比率의 觀念에잇서서 軍縮을생각하는것을 끄치고 될수잇는대로 長期間의 必要量을 互相告하야 商議한다는手段을 取할박게 업시되엇다

몬셀海相言明 米國에大衝動

英政府非難漸高?

【華盛頓二十二日發聯合】 몬셀海相이 二十二日 英國下院에서 現行海軍條約에 關한 比率放棄를 言明한것은 米國政府에 多大한 衝動을 與하고잇는데 필립스次官以下 國務省當局은 끗까지 愼重한 態度를 取持하고 링검大使로부터 어떠한 報告가 잇기까지는 論評을 避하고 싶다고 緘默不答하고 잇다 그러나 海軍省當局은 露骨的으로 發惜의 빗을 보이고 스완슨長官은 各國政府가 現行海軍條約의 制約을 維持하면 米國政府는 建艦計劃을 變更하고싶다는 旨를言明하고잇는데 英國政府가途中에서現行條約의 基礎를 構成하는 比率主義의 放棄를 確定한것은 諒解키 어렵다고 述하고잇다 또 핏트먼上院外交委員長은 率直히 英國政府를 論難하야 가로되 比率主義의 放棄는 華盛頓海軍條約의 放棄에 不外하다 英國政府 今回의 行動은 國際條約을 一片의 古紙로 만든 新實例이다

英獨海軍協定 下院猛烈히 攻擊

【電通倫敦二十二日發】 아이아스·몬셀英海相은 二十二日 下院의 英獨海軍協定質問戰에서 各派의 猛烈한 總攻擊의 的이되어 陳辨에 努力하엿스나 協定非難의 聲은 單히 勞働黨 自由黨及極右派뿐만 아니라 政府의 大勢를占한保守黨中堅勢力方面 에서도 把하고잇는터로 政府席에는 不少한 狼狽의 빗치 떠돌앗다

話題解說

同盟條約

◇ 外電에 依하면 駐中蘇聯大使 보고모로프氏는 上海로부터 北平에 赴하야 北中을 監視하는一方 國民政府에 對하야 北中의 日本勢力 增大에는 中蘇兩國이 다 脅威를 늣기게 되므로 日本이 다시 어떠한 要求를 하는일이잇스면 蘇聯은 中國에 對하야 武力援助도 不惜한다고 中蘇兩國의 攻守同盟締結을 提議 하엿스나 中國은 이를 拒絶하엿다고 傳한다。 우리는 攻守同盟이라는 것을 同盟條約의 몃가지 와 함께 알아보기로하자。

◇ 同盟條約이라는것은 同盟關係를 設立하는 條約인데 同盟關係에는 左의 三種이 잇다 (一)攻擊同盟、同盟의 一方의 國家가 第三國을 攻擊할境遇에 他方의國家가援助를 與한다는 것을 約定하는것。 이런 同盟은 現在에는 거의업다。(二)防禦同盟、同盟의 一方의 國家가 第三國으로부터 攻擊을 바든 境遇에 他方의 國家가 그 防禦에 援助를 與한다는것을 約定하는것。 最近의 同盟條約의 大部分은 이에 屬한다

◇ (三)攻守同盟、攻擊과 防禦의 同盟으로 同盟의 一方의 國家가第三國을 攻擊할 境遇에나 第三國으로부터 攻擊을 바더 防禦할 境遇에나 他方의 國家가 援助할것을 約定하는것이다。

同盟條約의 顯著한 例를 들면 一九〇二年、一九〇五年、一九一一年의 日英同盟條約、一八七九年의 獨墺同盟條約、一八八二年으로 부터 數回에 亘하야 締結된 獨、墺、伊의 三國同盟條約、一八九三年에서 九四年에 亘하야 締結된 佛露協商定等이잇다。 近者에 頻繁히 傳하는 相互援助條約、不可侵條約等도 이部類에 包含될수잇는것이다。

杉村大使言明은 政府方針에背馳

外相手中에眞相到着

【電通東京電話】 伊太利政府의公式發表라고 傳하는去十六日의杉村、뭇솔리니會談 內容은日本政府의 將來의行動을 束縛하는것이라고 依然 各方面의 物議를 釀成하게되엇는데 廣田外相은杉村駐伊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眞相報告를求하고 잇던바 二十二日 同大使로부터 廣田外相에게 到着한 報告에依하면 杉村大使의 言明은 日本政府의 方針과 背馳되어 在外使臣으로서 一大失態인 事情이 判明되게되엇다 即 去十六日의 뭇솔리니首相과의 會見에서 杉村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한 것이다』라고 前提하고 日本政府는 一、對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하야 容喙할 意思가 업는것 二、에디오피아에 對하야 政治的關心을 가지지 아니한것을 確言한것으로 伊太利政府가 當時 뭇솔리니케로 發表한것과 그 內容이 相違가 업고 全혀 伊太利에게 利用되엇이 明白하다 그리고 右杉村大使의 處置는 一、杉村大使의 訓令은 昨年十月 赴任할때에 廣田外相이 傳達한것이므로 如斯한 重要發言을 할境遇에는 그後의 事情變化에 鑑하야 當然 請訓할것이다 二、日本側은 伊에紛爭에 對하야 容喙할 意思는업스나 條約的으로 日本政府의 將來의 行動을 束縛하고 如此한 發言을 할必要는업다 三、日本政府는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政治的野心은 업스나 크게 政治的關心을 가지고잇다 이點에 關한 杉村大使의 發言은 全혀 잘못이다 四、뭇솔리니케發表에對해서도 미리諒解를 求해두지아니한 結果 부질업시 伊太利政府에게 政治的으로 利用된 結果가되엇다 라는 見地에서 자못 遺憾이라고하고잇다 如何튼 外交使臣으로 一大失態가된것은 免키 難하다 이點에 對해서는 外務省도 다시 廣田外相이 同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嚴重注意를 喚起하는 同時에 適當한 時期를 기다려 어떠한 措處를 取할것으로 보인다

二百의英義勇兵 에國戰線에參加

英米서募債에成功

【倫敦二十二日發聯合】 에디오피아公使 마친氏는 外債交涉의 經過에 對하야 二十二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에디오피아 政府는 國內開發을 爲하야 英、本國 又는 米國에서 二百萬磅의 外債를 募集하기로 決定하고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財界 有力者와 暫定 交涉을 進行하고 잇다 英國 國民의 好意는 全혀 感激하야 마지안는다 이미 二百人의 英國人이 義勇兵으로 에디오피아軍에 參加出征을 志願하엿고 公使館에는 每日과 가티 出征志願의 書面이 到達하고잇다 그中에는 無償으로 出征을 希望하는者도 不少하다

【倫敦二十二日發聯合】 에디오피아政府는 國軍의 充實을爲하야 英米兩國에서 外債二百萬磅을募集키로 決定하고 倫敦駐箚公使는 벌서 市場側과 豫備交涉을 開始하엿다

三百餘名政治犯 一擧毒瓦斯死刑?

【齊齊哈爾二十二日發聯合】 最近頻頻히 蘇聯各地의 反스탈린系의 陰謀가 莫斯科電報로 報道되고잇는이때에 二十二日 某所消息報에 依하면 反 사베트運動이 하바롭스크를 中心으로 大大的으로 일어나 約三百餘名의 政治犯人이 逮捕되어 全部死刑에 處斷되엇다 右三百의 犯人은 蘇聯邦에서 發明된 最新式毒瓦斯를利用하야 軍事化學研究所構內에서 死刑執行하엿다는것이 確實하게되엇다 從來도 毒瓦斯試驗에는 特定의 反革命分子로서 行하고잇섯는데 今回와가티 多數의 人命을 犧牲에供한것은 처음이라 蘇聯國內에 衝動을 하고잇다

杉村大使自重

【羅馬二十二日發聯合】 伊太利言論界의 激烈한 日本攻擊에 關連하야 伊太利政府側에서는 杉村大使가 二十三日 스비치外務次官을 訪問하고 善後處置를 協議할것이라고 述하고잇다 一部에서는 新聞의 論調에 對하야 大使로부터 伊太利政府에 嚴重抗議를 提出할것이라는 觀測이 잇는데 當該 杉村大使는 끗까지 愼重한 態度를 堅持하고 人心의 鎭定을 기다려 善處할方針인모양으로 二十二日午後如左히 言明하엿다 羅馬 駐箚大使로서의 나의使命은 日伊間의 親善關係를 增進함에잇다 伊太利國民의 感情이 極度로 高潮熱狂하고잇는 此際에 어떠한 行動을取하는것은 避하겟다

『爾後日本大公使의 言明은勿信하라!』

杉村大使不關心言明問題에 伊太利新聞揶揄

【電通羅馬二十二日】 杉村大使의 言明事件에 關하야 『조르날레·디탈리아』紙 主筆 가이다氏는 今日 『黃黑連帶의 使命』이라는 題目下에 同紙上에 如左한 反日的 社說을 掲載하얏다

今日 以後 各國政府는 日本의 大公使의 發表한 言明을 信用 할수업다는 權利를바든 셈이다』 彼等 日本의大使는 때로는 個人의 資格으로 談話하며 어떤때에는 本國政府의 代表로서 言明하는것이다 라고 揶揄하고 今回의事件은 **黃人種의好戰的進出**의 意思表示로서 吾人의 面前에 提供된것이다 日本은 그 文明의 標準이 被侵略國보담 월신 武力이 精銳되여잇다는 主張에 基하야 諸民族의 領土及民族上의 權利를 蹂躪해서 帝國主義的 攻略을 行하얏스나 그方法을 世界의 文明諸國이 無視 乃至誤解하고잇다고 생각하는것은 誤解이다 何故오하면 地球上에는 如斯한政策의適用되지안는 地點이 二、三이잇다 라고述하야 暗暗裏에 伊太利對阿弗利加政策을 一步도 不讓한다는 點을 强調하얏다 (寫眞은 杉村大使)

驍將로이스튼 에國援助決意

被壓迫民族을爲해

【라반트(南阿弗利加나타르州)二十一日發聯合】 부마戰鬪當時에英國軍을 引率하고 各地에서 轉戰한 驍將 로이스튼 將軍은 伊太利軍의 黑人帝國 壓迫에 憤慨하야 七十五歲의 高齡임에도 不拘하고 敢然 起立하야 에디오피아 國軍을 援助하기로 決定하고 一個旅團을 募集하야 東阿에 出征하고 싶다는 旨를 에디오피아 皇帝에 申請하엿다 將軍은 뭇솔리니 首相 今回의軍事行動을 不正戰爭이라고 斷定하고 被壓迫 民族을 爲하야 一命을 睹하야 싸울決意이다

日本이君臨하려고 黃黑兩人種上에

◇伊紙"敵國"題下에攻擊

【電通羅馬二十二日發】 杉村大使一評的 社說을掲載하고잇는데『멧사제로』紙와 가튼것은 敵國이란 題名下에 如左히 日本을 攻擊하얏다 日本은黃、黑兩有色人種우에 君臨하려고 企圖하고잇다 吾人은 今回의 杉村大使의 言明과如히 하는것도 日本이 從來의 言說에서 右同右를하야 黑人主義及 亞細亞 諸民族上에 한 政治的 經濟的勢力을 增加시켜서 現在 僅少하나마 갓고잇는 優越感을 增加할計劃에 着手하엿다는것을 認定하는者이다

駐伊大使館員 身邊警戒

伊太利人心激化

【羅馬二十二日發聯合】 伊에 兩國의 紛爭에 關連하야 伊太利新聞界는 一齊히、日本政府論難의 筆陣을펴서 人心은 依然激化의傾向을 보게되엇스므로 伊國政府에서는 萬一의 境遇를 念慮하야 杉村大使와大使館員의身邊을 警戒하기로 決定하고 日本大使館은 正服巡查六名과 黑衣隊員을配하야 警衛에 當하고잇다

新聞小史(十二)

民衆的感傷過程

南巡西巡、民人이悲喜(四)

民世學人

×

義兵騷擾는 前後五年間이나 繼續하엿다 海外로 亡命한西北地方의 洪範圖 李範允 李鎭龍(此人은 後年滿洲에서 잡혀 平壤에서 刑死함)等 數人을 除하고는 例外업시 敗沒하야 혹 鄕曲現地에서 혹京鄕刑場에서 그 運命의 最後를 이루엇다 許蔿 李康年等은 京城에서 刑死한 有數한 義將인故로 新聞紙上으로『五月羊裘』라고 三伏中에 솜옷입고 겨울은(前者)獄中情況도 실렷고 刑을執行하는날에 乃子가 獄門을 차자 (獨獄洞典獄 後者)懇請하엿다는 뉴스도 남겻다 이時代의 이騷擾는 그 歷史過程에서 슬퍼할必然이오 가혹한 無謀이오 또 아름다운 悲劇인것이다

×

『血竹義行錄』라고 古詞體의 表題를 부치가면서 목메게 맛보한것은『血竹』을빌어 閔忠正을 讚頌한文字로서 光武十年여름 各報에실려 잇는것을 古新聞을 읽는者 눈에 띄어 感銘이잇슬것이니 그것은 高貴한 一特色이외 (浪漫火賊、播) 滿村圍』라고하고곡『戰爭方略』이란者를報筆로서 閱陳한것에보아 社會의動搖됨이 갓가지로 甚하엿슴도알것이며 이로尊 派亂만 하엿든가하면『泣告我二千萬同胞』流의 悲痛한文字로써 『國債報償』의 運動을 血心으로鼓吹한것은 光武十一年 一月以降의 當年各紙面의 現狀이니 現代의士女들이 무슨『數濟金』으로 一族의氏名을 늘리노하는 十錢 五錢하는 三錢식 百千萬數의 芳名錄을 廣告로 보담은 차라리 眞摯한 金額과 貴金屬의 出捐이며 大邸에서 禁酒斷煙으로 始作한 이運動이 京城에서는 二月二十一日로써 各界名士를 網羅한 『國債報償期成會』로되엇고 日本에 對한 施政所用의 國債 一千三百萬圓은 二千萬兄弟姊妹의 血誠의 集金으로 밧듯이 報償할수잇슬것을 力說하엿고 또國債報償即國運挽回인것처럼 熱中한것도오늘날에 돌아보아 가륵한幼稚인것을 認識할수잇스되 村婦市童까지를 아울러서 눈물겨운感激에 불타고 잇는것은 차라리 國民的 思想運動이오 또 그들民衆意識의 昻揚過程으로 오히려 紙面에 薰香나는 記錄이다

×

隆熙二年 戊申八月 二十七日에는 東洋拓殖會社가 成立되엇다 日本側은金錢으로 韓國側은 驛屯土를 合辦한資本은 一千萬圓이오 移民과貸金에關한 事業經營으로 翌年一月부터의 始業이엇다『滿韓集中』을 공론하고잇는 日本側의 移民計劃說은 當時 人心을 퍽은刺戟하야 帝政鐵道의 猶太人移住演劇等 事實이 紙上으로 往往示唆되것을 알것이오 隆熙三年一月 純宗帝의 南巡과 一月末로 二月八日까지의 西巡은 五百年來 前例가 업는일로 人心洶洶定의 政治的試驗이엇는데 京鄕各地 男女老幼가 踊動하는 祗送迎의 誠意를 보인것도當時오히려 어설핀紙面에 歷歷한바이며 同年四月 現在『안감내』附近인 東籍田親耕式에도 上下貴賤 다만歡呼熱狂의 記錄을 남긴것은 已未丙寅의 京鄕의 士女들이 德壽宮과 昌德宮前에서 放聲號哭하든그것처럼 民衆的感傷의 同根異枝의 無意識的發露인가? 筆者역시 感激歡呼하든 그때의靑年이라 오늘날 紙面을 더듬어 當年의記憶에 되돌아보니 그 꺼지려는燈불이 마지막으로 반짝할이더냐? 生長되는 氣勢가 그 長遠한後日이 저허할바 잇슴을 보앗든者잇슴이냐? 風雨當年 모질게만 불어것만 關山萬里! 갈곳이 득하엿든것이다 이동안에 잇서 內外東西 絶望的인 事件이 가지록時局의 急迫함을 預感케하는 記載를곳곳이 남길수잇다

八面鋒

世界第一을 目標로 年復年豫算을 더내어 擴充하는 米海軍。

◇ 太平洋沿岸防備에 더욱 熱中하는中이라고 下院議員이 漏洩。

◇ 戰爭의危機보다 失業의危機를 救하기 爲함이라하면 軍備擴充도 爲先有效(?)

◇ 軍事豫算의 膨脹을보고 景氣가 조와질것을 먼저깃버하는 축이잇는 世相이라면 알마한 일。

◇ 正面衝突은 時間問題라고 하든 伊에紛爭도 英佛의斡旋으로 妥協될듯。

◇ 不戰而勝하는便이 잇다하면不戰而敗하는곳도잇슬것。

◇ 實力以外의 方法으로 勝敗를 決定하게되는 不純한일아닌가

本紙夕刊八面

本紙號外發行

漢江增水와沿岸被害로 二十三日號外를發行하엿습니다

人事·集會

▲金泰源氏 新興學校敎務主任校務를帶하고 入京中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八木信雄氏(黃海道警察部長)新任人事次二十二日來社

▲北村揮雄氏(總督府事務官)同上

▲宋秉敦氏(金泉高普敎員)日前入京中 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洪錫厚診察所眼鏡部
主任 … 學
檢眼 無料
醫學博士 洪錫厚 擔任
京城鍾路 … 光化門 … 二八

京城府黃金町三丁目二〇
金銀白金高價買入
金寶堂 吳健燮
電話本局七六七番

百圓
…右記의者를 探索하시와 通知하시는분에게는 謝禮金으로 一金百圓을 呈하나이다…
京釜線天安 … 天安館 李桂白

金 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自轉車材料原價奉仕 信用問屋
特典付 商品取引
東京市日本橋區 諸官鳳

肥滿劑
… 小川藥院

筆生
適齡男女不問自宅机上에서自手로輕可快될 …
大和國郡山町 山鹿文庫

當選謝禮
今番本面協議員選擧에際하와 諸位의深厚하신援助로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原州郡地正面 元顯愚 趙晉九 元亨圭
原州郡貴來面 申命均 金鍾台 金鍾河
原州郡富論面 金東轍 安鍾九 申鴻善 朴重善 方漢龍 朴過榮 沈相英 禹在根 李鎭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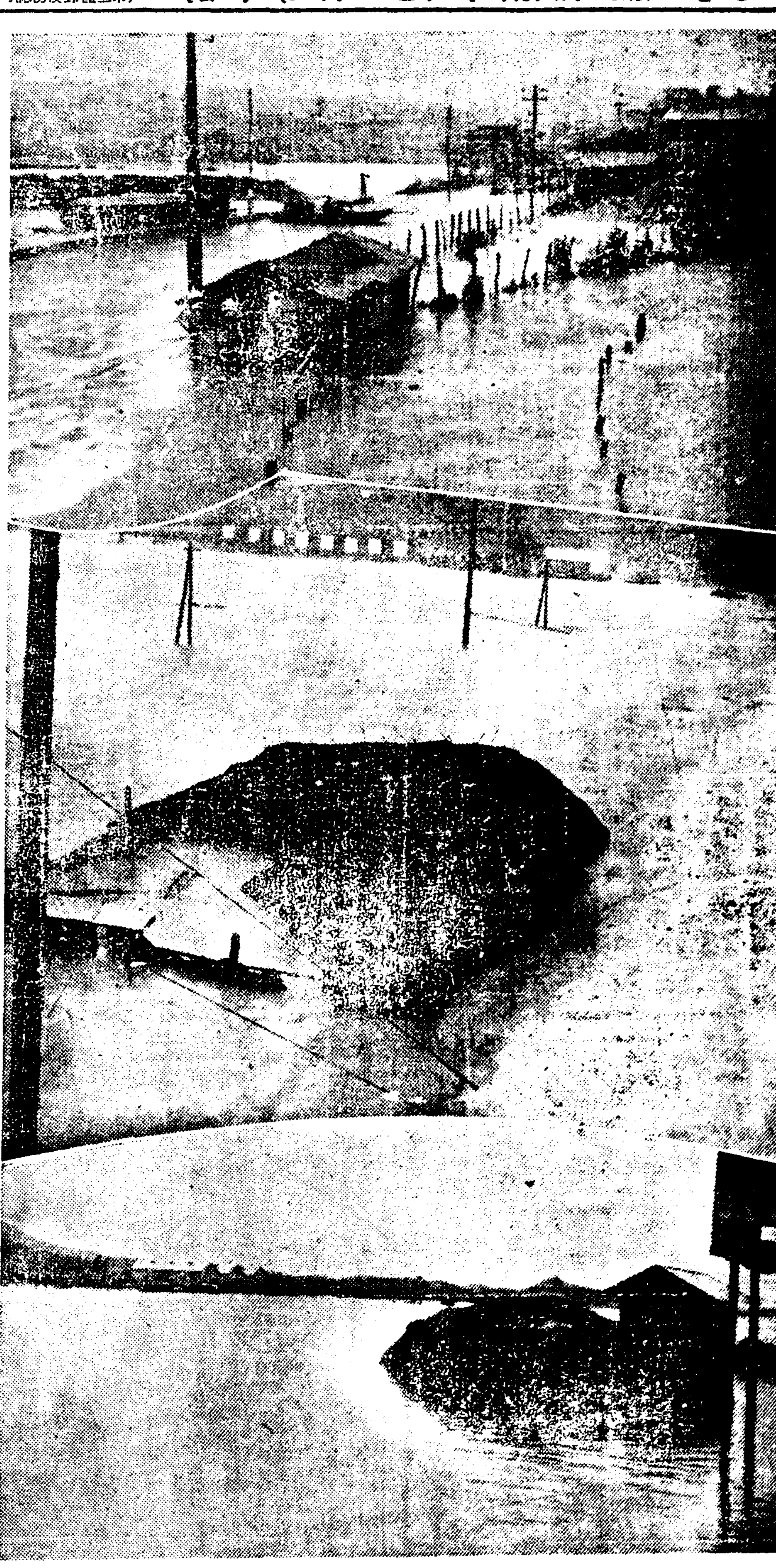
七月廿三日부터 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後二時半 七時 夜九時半
模倣의人生
噫의超特急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二十三日より
一、M.G.M特作日本版 極樂發展俱樂部
二、ユニヴァーサル超特作日本版 模倣の人生
洋畫專門 浪花館

七月二十三日부터三日間
每日三回 十二時 三時半 八時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乘合馬車
二人靜
朝鮮劇場 電光三六二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 빨내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 極히 佳良
一、손을 안거칠게、살결은 안傷하게
一、洗濯後에 不快한 내음이 안나고 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水災畫報 ― 상으로부터 첫재 둘재는 뚝섬일대의 침수가옥과 다음은 문산역전의 침수현장

沿江一帶浸水家屋 千九百八十七戶

各地陸運은 거의 杜絶狀態

死亡失踪者十名

련일폭주하는비는 이십일일밤열시경부터 그폭주하는정도를 더동주어가지고 이튿날인이십삼일아츰열시경까지 퍼붓든드시 내리쏟다서 경성시내를 중심으로 부근각지에 근년에 보지못한 큰 물소동을보이고마럿다

이제 이날 오전열한시현재 경성을 중심으로한 물의피해는 시내 명치정(明治町)이정목칠십팔번지에서 가옥 두호가붕괴되얏고 동번지 중국료리점의돌담다섯간이문허지고 욱정(旭町)이정목칠십오번지에는 이호가상하친수가되얏스며 신정(新町)사번지에서 이십여호가침수되얏고 길야정(吉野町) 이정목십륙번지에서 돌담두간이문허젓스며 림정(林町) 이백칠십오번지에서 집한채가 문허젓다 이외에 근교각지의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東幕方面 浸水屋上 四三二戶 同 床上 五五四戶 同 床下 四三二戶
◇纛島方面 浸水床上 一三八戶 同 床下 六四〇戶
◇其他郡部 流失家屋 六戶 浸水床上 五五戶 同 床下 一五九戶
◇人命死傷 壓死 七名 流失行方不明 三名

이외에 교통으로는 뚝섬방면의 궤도차(軌道車)가 불통되고경성、강릉(京城、江陵)의이등도로가 끈어지고 광나루(廣壯)살고지리(箭串橋)의 도선장(渡船場)이끈키되야 리천 양평(利川、楊平)과장호원 안성(長湖院、安城)간과김포 강화(金浦、江華)사이 자동차가 불통되고 마포행(麻浦行)전차는 공덕리(孔德里)이하가 불통중이며 근교각지와 시내각처의 리재민은 만여명에달한다 이외에 파주군장전면당일천(坡州郡大田面常日川) 시장부락은 팔십여호가 침수되야 주민은 모다양조장(釀造場)에 수용되얏고 양주군와부면덕소리(楊州郡瓦阜面德沼里)에는 피난민이 삼백칠십사명이나되는데 부근보통학교에 수용중이다

咀呪할水魔·京南을蹂躪

家藏什物실은木船 大路로右航左航

泥海에遍滿한呼父呼子聲!

麻浦東幕災地一帶跋涉記

『지나간 을축년(乙丑年) 홍수가다무어이냐?』는듯한 호세(豪勢)로 연 사흘동안을 두고 나려퍼붓는홍우로 말미아마 경성시내의 피해는 실로방대한중 그중에서도 룡산서(龍山署)관내가 제일우심하다 할수잇다 더구나 마포(麻浦) 동막(東幕)일대의 침수정도는 실로 언어도단의정도로서 삼개(麻浦)물이십『메돌』이란 엄청난 수위(水位)에 달하면서 강물이 범람하는통에 부근일대인 마포동(麻浦洞) 동막상하리(東幕上下里) 현석리(玄石里)며 심지어 도화동(桃花洞)、구공덕리(舊孔德里)등과 경성형무소 압(京城刑務所)까지 물이 내몰려들어서 삽시간에 문자그대로 일망무제한 망망탁해를 이루고말엇다

창졸간에 이수난(水難)을 당한 전기 각동리주민들은 남녀로유가 피난을 하노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해는남편을 급한소리로 서로 불으지즈며 의장을 끄러낸다 구루마를 부른다 배사공을 데리려간다 법석치는 정경은 실로 처참하엿고 보는사람으로 모골이 송연케하엿다

그리고 간신히 끄집어 내인 가구를 배에 실어가지고는 놉흔 지대에잇는 친척의 집이나 아는사람의집으로 벼락 이사를 가는것은맛치전시(戰時)를연상케 하엿다。억그제까지도 륙상(陸上)교통지대이든 그쪽이 날수로 겨우이를 시간으로 불과오십여시간만에 수상(水上)교통화한다는것이야 넘어나 심한 자연의 작희가 안이면안될것이다。

피난민중에서도 살림이넉넉한사람은 문제업지만 날품파리로동자 리재민들은 천만꿈밧게 이물난리를 당햇는지라 창황망조해서 가족들끼리 서로붓잡고 호곡하는정상을볼때 누구나 무자비한 자연의폭위를 저주안할수업섯다。

그들피난 리재민들을 수용한 마포 보통학교(麻浦公普) 룡강면사무소(龍江面事務所)두곳엔 옷보퉁이、바아치、남비쪼가리들을 끼고몰려들어온 리재민들로 소란스럽고 애처로운정상을 보이고잇섯다 그리고그들이 자긔집에남기고온 장변가족과 밋가장솟출의 안위를몰라 초조하는정경을 보이며 그들 리재민들끼리 『당신댁 세간짐은 어찌됏소?』『당신네에기는 엇다두엇소?』『관찬켓지 넘어거정마오』하며 서로들위로하고 염려해주는것은 문자그대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이엇다。억그제까지도 보이든 면십호의인가와 수만평의 푸른포플라한채마밧이 몽땅 물에파뭇처바린동시 그위로는 목선들이때를맛난듯이 버리지리를 어드러고물녀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여기어차! 배엽피젓차!』웨치는 소리가일어나 아모래도 꿈속에서 노는것가튼 일막의『스크린』이엿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이런것을두고 한말일것이다

본사구호반출발광경

本社救護班四隊 今朝一齊出動

麻浦、纛島、新舊龍山、四隊로 災民救護에活動

수란(水亂)에 짓밟힌 마포(麻浦) 뚝섬(纛島) 룡산(龍山)방면에는 수천의 리재민이 흙바다속에서 일조에생도를 일코방황하고잇서서 그피해는 실로 예상이상인것이 각각의조사에 의하야 판명되고잇다

본사에서는 이시급한구호를 요하는 리재부락에 각각 네대로 난호아서 구호반을 출동시켜서 방금최대한도의 구호에당하고잇다

麻浦方面 張斗益 洪起文
纛島方面 宋秉暉 張豪俊 成俊德
龍山方面 文東彪 秦 蕃
舊龍山方面 方建斗 金鎭炫

茫茫한濁海中에 電信竿頭만點點

東西纛島、上下往十里一帶는 住家全部가浸水狀態

뚝도(纛島)방면은 왕십리(往十里)로부터 겨우배를리용하야 건너가게되는데 그일대는 도도한 탁류에 잠겨잇서 가옥도로등은 전부 침수가되고 겨우 보이는것은 용소슴치는 탁류위로 한두자가량씩 소사잇는 전신주꼭대기이외에는 상류인 춘천(春川) 방면으로부터 농작물 파괴된가옥, 떼목등이 늘비하게떠려잇슬뿐이다。뚝섬은 그중제일노픈지대의 십여호가 무사할뿐이요 천여호전부가 완전히 침수되엇다

구호상황은 소관동대문서로부터 리(李)보안주임이 서원을 독려하야 리재자를 구출하는중이며 특히 수영에능한 경관이십명을 선발하야 위험구역을 돌파하고 구조에 노력중이며 다만 현재 형편으로 물이 이상더붓지아니할뜻하며 왕십리방면으로의 리재민이송은 하지아니하고 뚝섬에서 높은곳을골라 일단피난케하는중이다

이밧게 본사구호반이 출동하여잇고 또 소방대、청년단、소년군등도 출동구조중이다

纛島一帶罹災民 五千名을突破

救助收容所를準備中

뚝도(纛島)일대의 리재민의 구호를 목적한고방면의 본사구호반 송병휘(宋秉暉)장호준(張豪俊)성준덕(成俊德) 삼씨는 뚝섬과 왕십리(往十里)를가로막은 황파를 헤치고 누구보다도 먼저 재난의 부락뚝섬수원지에 배를대엿다 이부근의 피해는 뚝섬이 상상 침수가 사백륙십륙호 상하 침수가 륙십호 라고 하며 자마장리(雌馬場里)는 상상 침수오십호 향당리(香堂里)는 상상이 이십호 상하침수가 오십호가량이라고한다 또한 하왕십리는 상상침수십오호 상하침수가 이십호인데 구호에 출동한 경찰당국에서는 왕십리 보통학교와 광무대(光武臺)와 청년사(靑年寺)세곳에 뚝섬 리재민오천명가량을 수용하려고 방금준비중인데 한남(漢南)한북(漢北)뚝섬의 각소방조원 삼십여명이 출동하야 이를 응원하고잇다

銅雀、黑石里被害

이삼일재 밤낫을 두고 쏘다지는 호우로 말미암아 시외 시흥군 북면 동작리(銅雀里)와 흑석리 에는 동강한 한강수가 넘처밀어 드러서 침수 가옥이 작고 느러가는중인데 금일 오전십일시까지 다음과 갓다한다

	床上浸水	床下浸水
銅雀里	五	一三
黑石里	三	一一

濁浪中의纛島에 本社救護班活動

同地罹災民四千八百名은 往十里로續續移送中

뚝섬(纛島)의 수위는 오후두시 현재로 십미돌을 돌파하여 뚝섬일대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여버렷고 한지면(漢芝面)수철리(水鐵里) 두모리(豆毛里) 서빙고(西氷庫)일대도 점점침수가옥이 심해진다 뚝섬면 사무소에서는 피난민(避難民)을 속속 운반중이다 발동선 이척을가지고 피난민을 뚝섬에만 사천팔백명에달하는바 일단뚝섬면사무소에 집합시켜가주고 왕십리(往十里)방면으로 운반하는중이다 가옥인명의 피해는아즉 판명되지안하엿스나 소와말(牛馬)의 피해가 약삼십두(頭)나되고 채소의 피해가수천원에 달한다

형세가 이가치 점점 위험하여짐을따라 룡산헌병대(龍山憲兵隊)는 비상출동을 하야 수원지(水源地)부근을 극력 경계중이다

본사구호반은 뚝섬리재민 사천팔백여명에 대하야 간곡한 위문과 피난에대하야 극력 편의를 도모하여 인명에 위험만은 업시 피난을 마치게되엿슴으로 동뚝도(東纛島)마장리(馬場里)방면으로 배를타고 건너가는중이다 뚝섬방면의 교통은 완전히 두절되야 겨우 배로 련락하는중이다

永登浦市內 浸水五十戶

【永登浦支局電話】이십이일밤서 시부터 이십삼일 오전열시까지의 영등포의우량은 일백이십륙미리로 영등포제방은 오십여척이 남기엿스므로 이게당(二階堂)영등포서장은 서원을 출동식혀 철야제방을 경게하고 이십삼일아츰열시에는 군읍、세무서、토목출장소、소방조등 간부십오명이 방수에대한 협의를하얏다 이어 이달(伊達)경성부윤이 역시와열각방면으로 려방하고 방수에대한협의를하얏다 침수가옥은 영등포시내만 오십여호이고 리재민 이백여명은 례배당、유치원등에 수용중이며 명수대(明水臺)와 기타에도침수되가옥이 수십호이다

越川中一名溺死

이십삼일 오전아홉시경에 양평군룡문면광탄리(楊平郡龍門面廣灘里)에서는 마을압 흑천(黑川)을 도보로 건느든 행인한명이 그만 급류에 휩싸혀서 흘러가버렷는데 부근주민들이 출동하야 건지려고 노력중이나 전연히 망이업다고한다

비는二三日繼續

京城總雨量三六〇미리

乙丑年洪水時는五百八十미리

颱風의方向은轉換

【仁川支局電話】인천관측소의발표에 의하면 비는 아즉 삼사일간 계속될모양이오 그중에도 황해(黃海)강원(江原)충남북(忠南北)경기(京畿)의 중부조선각지는 일반의경게가 필요하다 하며 인천지방의 이십이일 밤이래 이십삼일 아츰까지의 우량은 구십오『미리』에서 그동안의 총우량이삼백팔십구『미리』 나되다고한다

중부조선이 이와가튼데도 불구하고 비를고대하는 전라남도일대에는 소나기만 오락가락할뿐이오 아즉도 혹독한 강우가업는 형편인데 압흐로 올히망은 만타고하며 남양(南洋)에서 발생하야 북서(北西)로 올라오고잇는 태풍(颱風)은 대만(臺灣)을 거처 석원도(石垣島)근처 까지 와다가 이십이일 이래로는 서북(西北)으로『코ー스』를 전향하야 중국대륙으로 드러가기때문에 조선은 념려되든 태풍화를 입지안케 되얏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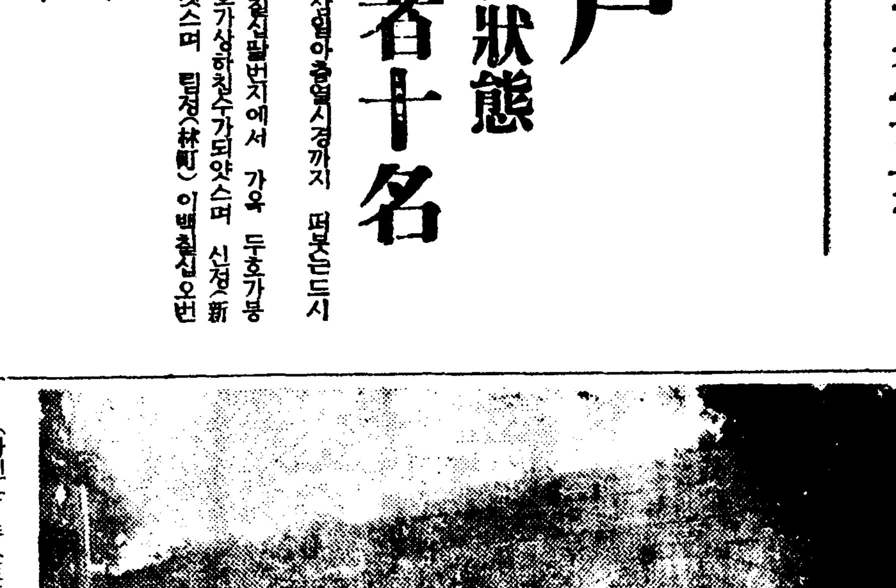
이와동시에 경성측후소의 발표를 드르면 이십일 밤부터 시작하야 폭주 또폭주로 퍼붓은비는 이십삼일 정오경에야 겨우 멈추하엿다。 그동안 내린우량이 이십삼일 오전열시、현재로 삼백륙십미리라는 엄청난 수자를 보엿는데 그러나 최후 소축의 말을 드르면 비는 이십삼일에도 개이지아니하고 지금 기압배치로보면 이십사일까지도 역시 비가 내리리라 한다

東豆川堤防決潰 民家二十戶浸水

【東豆川支局電話】이십이일밤부터 오기시작한 비는 이십삼일 아츰에 이르러 마츰내 그동두천뒤게바을 붕괴식히고 이십여호의 침수를 보엿는데 주민들은 피난코자 갈팡질팡하야 인심이 소란하다 주재소와 소방조는 협력하야 방수중이며 비는 계속해 오는중이다

水標橋서墜落

이십삼일 오전열한시경에 시내관수동(觀水洞)수표교(水標橋)를 때마침 나리는 폭우를 무릅쓰고 자전차를 타고 건너가든 다옥정(茶屋町)백오십사번지 신응석(申應錫)(二三)이란 청년이 이갑작이 그자전차와 함께 다리아래 떠러지며 급류에 휩싸여서 나려가기시작햇다 급보를바든 소관본정서에서 경관수명이 현장에출동하야 부근주민들과협력하야 건지려고 애썻서나 오후한시경에 이르러 겨우자전차만건지고 그청년는 건지지못하엿다고한다 그리고자전차의 번호는 경오만구천일백칠십삼호(京五九一七三)



(사진은 동소문전차시 현장)

東風雨
昨日 最高 二五、九 最低 一七、七
今日 正午 二三、八

西氷庫一帶에도 五十餘戶나浸水

【京南】이십이일밤열시경에이르러경남일대는 방금한강가교(架橋)공사로 수문(水門)을다치지 안은까닭에강물이역수하야 침수가옥다수를 내엿는데수철리(水鐵里)에십일호、두모리(豆毛里)에십이호、한강리(漢江里)에세호、보광리(普光里)에 륙호、서빙고리(西氷庫里)에 다섯호、잠실리(蠶室里)에이십호、동작리(銅雀里)에 십이호、흑석리(黑石里)에 십이호 이고경성룡인간(京城龍仁間)의자동차는 두절되얏스며 한강리와 서빙고의각도선장은 오후다섯시부터불통되얏고 열시현재의서빙고수위는 십미돌이십이로계속증수중이며광장리(廣壯里)가교가위험하야 이이상증수가되면 류실될념려가만호므로 공병대(工兵隊)가출동하야 철야경게중이다

滿洲遠征의 普專快勝

八對一同胞팀敗

【奉天特信】普成專門學校 蹴球部 滿洲遠征 第一戰인 全奉天同胞팀과의 對戰은 二十日午後五時 二十五分부터 常地普通學校 球場에서 金鳳恒(主)、朱弘烈、申東圭(線)三氏 審判아래 開始한바 連日의 降雨로 因하야 그라운드·컨디순 極히 不良한 가운데 열리어 數千觀衆歡呼裡에 進行되니 前半은 五對一로 普專리ー드、後半엔 三對零으로 結局 八對一의 큰 差로 普專側 第一戰에 大勝하엿다

【奉天】
俊鎬燾俊龍然均煥洙國斌
孝龍正容烋初東應武文愚
禹耳李韓金金李李金孔李

G K R F L F R H C H L H R W R I C F L I L W

【普專】
再禎永漢植禧濟鎬寬義峰
相宇燦錫容炳孝宗煥在二
李朴洪李金金朴裴高吳文

城壁이崩壞하야 一家三名또壓死

今曉敦岩里에慘死

이십삼일오전일곱시쯤에 동소문박 돈암리(敦岩里) 오백삼십삼번지 방수규(方壽圭)(四〇)의 집에서는 폭우로말미암아 그집뒤 성벽이 문허저서 집이넘어지는바람에 그집주인 김정규와 장녀(륙세)와 차녀(삼세)등 세명은 무참히 눌려죽엇다한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서원 수명이 현장에 출동하야 시체 발굴작업을하엿는데 어린아이 두명의 시체는 차저내엇스나 방수규의 시체는아즉도 발굴하지못하엿다고하다

廿三日午後三時現在各處水位

漢江人道橋九米、旭川十米三五、纛島十米

무심히버린것도 후일에는갑나가

색보모으드시못쓸것도모아두자
알뜰한부인네의공덕

아술때를생각하고 뒤의사람을위하야

옛날에이르기를 개똥도 약에쓰려면엇기가어렵다고 합니다。그말을한번뒤집어 생각할때 개똥이라도거두어두는이약에쓰는수가업지안타는의미로 해석됩니다。물론개똥그것을 꼭거두어두어야한다는충고는 아니겟지오만은온갓우웟게생각하든 물건을엇지못해서 쩔쩔매는경험이 적지안습니다。

사람에딸아서

무엇을수집하는 버릇이잇서 남이보기에예사롭지안토록 모호기에바쁘고 간직하기에 애쓰는이가잇는데 모든사람이 그러케할수는업더라도 그런사람이잇서나쁠것은 조금도업는일입니다。

×

그러나무엇을모흐느냐?」또 「모호는것을 어떠케간직하랴?」 여긔에는 그사람의취미와 긔호가들어날뿐이아니라 그사람의

상식과교양이

보이어지게됩니다。살림사리를중심으로 다만부집개이하나 떨어진 비한자루라도 유렴삼아모하두는것은 살림스군의 수집이요 아버지의글씨 할아버지의 손때를 애지중지모하두는것은 넷날효자의수집이요 문화의자최를행여나일허질까 자그나마모하보자는것은 문화인으로서의 수집입니다。우리조선에는 살림스군의수집가도 드물지안코 넷날효자식의수집가도 귀하지안습니다마는 문화인으로서의 수집가가 별로이업습니다。오늘에잇서 사오십년전

문화의자최를

어떠한책이아무하거나 다시사오십년후 오늘날문화의자최들어더보기도밧븟이 용이하리라고생각되지안습니다。

×

본래수집을잘하는것은 청년보담로인이요 남자보담부인입니다 지금우리조선서 문화의자최를수집하는사람이적은것도 결국로인과 부인네들이 그만큼문화에대하야

일반적상식을

가지지못한테 말미암는것이아닙까고 추측됩니다。헌검끄럭이를모아서 쏘가보를 맨들고 흔린종잇장을주어서 키질은하건만 백지책장은 뜨더서 벽에바르줄만알고 잡지신문은찌저서 수지로쓸줄만아지안습니까?조각보를맨들고 흔린종잇장을키질하는 그정성과그힘을가저서 책이나다른것을앗기어보관하얏든들 문화의 자최가 좀더풍부히남앗슬수잇지안습니까? 그것은물론 부인네의죄만이아닙니다。

그보담은부인

네를가르치지못한이사회의 죄입니다。어쨋거나무지한부인네의손으로 문화의자최는 만히업서젓슬뿐이아니라 장차로도 하로밧비 흔책에도 보물이잇고 신문잡지도 오래두면귀하다는것을 아리키어서 무의식한문화의 파괴자로부터 그들를구해내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

어느집안악네는 엄청이 자긔남편이상하엇슬때 딸딸아가며모하노흔 넷날조선의

신문과잡지를

주체하기어렵다고 휴지로다팔아버리엇다고하며 또어느집안악네는 자긔식집조상의문집나부랭이로 모다벽을발라 버리엇다고합니다。이얼마나참혹한소식이오니까? 그안악네는무식하니말할것이업지만 그친척이나그동리시사랑에도 그를말리는분은 한사람도업섯든모양입니다。

이얼마나 안타까운노릇이오니까? 우리조선서는 대체로

문화의자최를

앗기어 그끄틀이나 보물악지라도 모호고 간직하려는 사람이 새벽별과가티 희귀한까닭에 더구나 부인네들은 그러한것을 만히 보고듯지못하엿습니다。설사집안에서나일가간에 그런사람을한들가젓더라도 도리어그사람을괴파스럽게만 알아버리게됩니다。이제부터는 우리모도가 수집가노릇을해봅시다。그래서넷문화의자최를 더일허버리지안토록 또오늘날문화의자최는 아조잘전해가도록 다가께노력합시다。

淑女會總會流會
八月十八日再開

새명녀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조직된 숙녀회(淑女會)는 작일에 총회를 동교강당에서열기로되엿든것이 류회가되고 오는八월十八일에 다시열기로되엿다고합니다。

短篇小說

만무방 (7)

金裕貞 作
安碩柱 畵

응오는 봉당에 걸타안젓다。그압 회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끌는다。그는 정신업시 드려다보고 안젓다。

오촉중한 방에서는 안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색、색、하다가 아이구、하고는 까우러지게 콜룩어린다。가래가 치밀어 몹씨 괴로운 모양——할아옵사이가 업시 풀들은 뜰에 엉겻다。흙이 드러난 집웅에서 망초가 휘어청휘어청 바람은 가끔 차저와 싸리문을 흔든다。그럴적마다 무흔•음쓰던스럽게 빼—꺽빼—꺽。이웃의발발이는 번에서 한창 바쁘게달그라어린다。마는 아츰에 안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밧게야。아니 그것도 참 남편 마자 금엇스니 사발에 붓튼 찌꺽지뿐이리라——

『거、다 죨앗나부다』

응칠이는 약이란 너머 졸면 못쓰니 고만 짜 먹이라、하엿다。약이라야 어제저녁 울뒤에서 올가드린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오는 뭇고도 흘렷는지 혹은 못 드럿는지 잠잣고 고개도 안든다。

『엣다 송이맛이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제야 겨우 시선을 돌엇스나 술이 건아한 그 얼골을 거붓상스리 훌터본다。그리고 송이를 고맙지안케 바더 방으로 치트리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럿다。그래도 잘 들리지 안흠으로

『뭐야 뭐야、좀 똑똑이하라니깐?』

하고 꼽피를 찌프린다。

그러나 안해는 손즛만으로무슨 소리지 알수가 업다。웅성으로 치는니보다 조히부비는소리랄지、그걸 듯기에는 지처도 먹엇다。

가만히보다 응칠이는 재가다 물안하야

『뒤보케다는게 아니냐!』

『그럼 그러다 말이 잇서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이며 몸을 이르킨다。병약한 안해의 응석이 날로 변하야감을 시바안것도 아니련만——

그는 방바닥에 느러저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일으키어 등에 업엇다。

율바 밧머리에 재간은 노혓다。머리가 놀랍만치 날짝한가갈한 글속이다。게다 거미줄은 예제업시 엉키엇다。부추통우에 나려노흐니 안해는 벽을 의지하야 웅크리고 안는다。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지키고 섯는것이다。

이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옷칠이는 마뚝지안켓 코를 쳉、푹며 입맛을 다시엇다。응오의즛이 어리석고 울화가 터저서이다。요즘 응오가 형에게 잘 말두안코 웨 어뚝비뚝 한는지 그속은 응칠이도 모르는배 아닐것이다。

응오가 이 안해를 차저올때 꼭 삼년간을 머슴을 살엇다。그처럼 먹고십든 술 한잔 못먹엇고 그처럼 칠울삼키든 그 개고기 한메 물론 못샀다。그리고 사경을 밧는대로 꼭꼭 장리를 노핫스니 후일 선채로 썻든것이다。이러케까지 근사를 모아 어든 계집이련만 단 두해가 못가서 이꼴이 되고말엇다。

그러나 이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의원에게 한번이라도 변변히 뵈본적이 업다。혹안다는 사람의 말이녹 뇌점이니 어렵다 하엿다。돈만 잇다면이야 뇌점이고 염병이고알바가 못될거로되 사날전 거리로 쫏차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챌 적에는 응오도 어지간히 급한모양이엇다。

『왜?』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말이 인제는별 도리가 업다。잇다면 픽한가지가 남엇스나 그것은 어끄적게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마을에 오지안혓는가。그도인이 응오를특히 동정하야 십오원만 드리어 산치성을 올리면씨슨듯이 낫게해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만들수 잇지유?』

『거안된다、치성드려 낫병이그냥안낫겟니』

하야여전히 딱떼이고 그러케내 뭐래던、애전에 계집다내버리고 날따라나스래지、하고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목매기라지!』

그러나 아우가 암말업시 몸을 홱 돌리어 집으로 들어갈제 응칠이는 속으로 또 땡은 소리를 햇구나、하엿다。

라듸오 娛樂

二十三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童話 꿈에맛난人魚 高在天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一) 朝鮮儒敎會 張 濤
◇同八時 音樂講話 伽倻琴散調에對하야 (二) 李基世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진양됴(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大丈夫(나)唱劇調 바라령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九時 才談과俗曲 一、平壤歌 二、四節歌 三、장님타령 四、才談 노래가락 五、才談 창부타령 其他 李山玉
◇同九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暴徐의아들 全一幕(配役) 暴徐…申佺民 父…金相和 母…宮四仙 妻…朴玉多 어는男子…張保弘 放送劇研究會 指揮 張石燾 效果 效果班

二十四日(水曜)

◇午後一時五分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野球朝鮮中部豫選準決勝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어린이의音律」三題 其他 金坡國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二) 朝鮮儒敎會 張 濤
◇同八時 時事講話(二) 兪鎭午
◇同八時三〇分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黃河淸(絃樂)(樂譜)牙箏、奚琴、唐笛 二、波停兒之曲(管樂)(樂譜)奚琴、大笒、細笒、唐笛、杖鼓、座鼓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獨唱 一、오라…玄濟明作曲 二、자장가…李興烈作曲 三、봄의길목…슈—버—트作曲 四、젊은女僧…同 五、아베•마리아…同 伴奏 朴慶浩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烟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沈淸歌 朴綠珠 鼓手 丁元燮

二十五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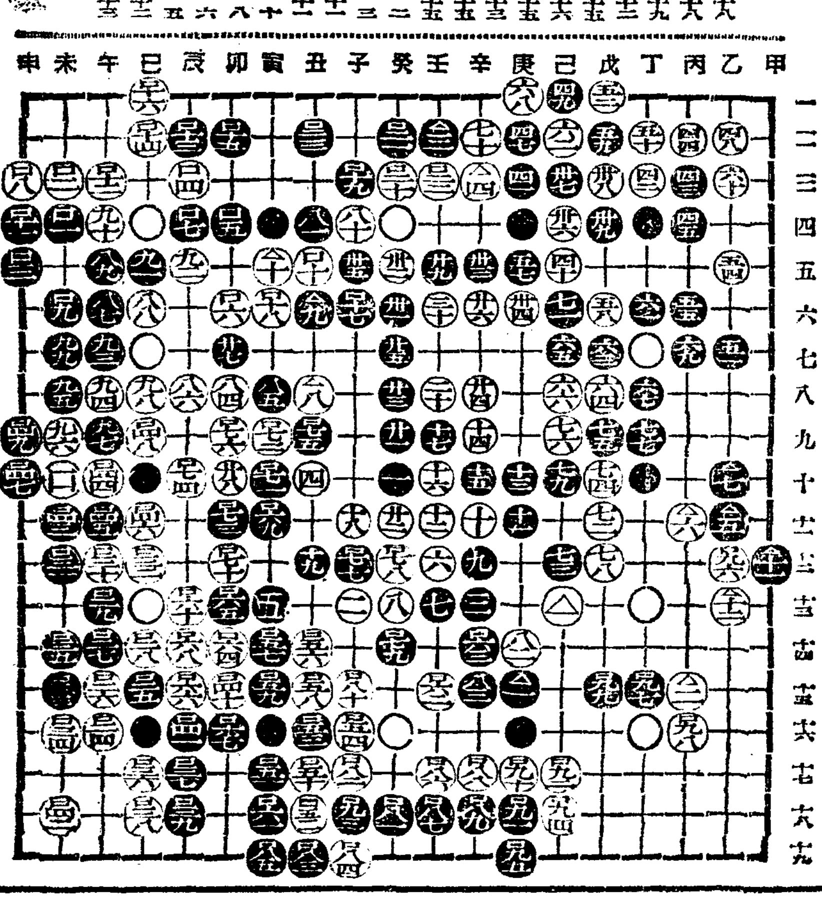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東)木曜日講座—드오페라의입문 東京 라듸오 오케스트라 指揮 高原正雄
◇同六時三〇分 山口■■■ 梨專文科長 金尙鎔
◇同六時五五分 衛生講話 今年의腸窒扶斯와赤痢의流行狀況과其豫防에對하야 京畿道衛生課 醫博 晋宙鉉
◇同八時 時事講話 普專敎授 兪鎭午
◇同八時三〇分 伽倻琴竝唱과新民謠 一、伽倻琴竝唱 (가)大丈夫 (나)花草歌 二、新民謠 (가)三角山打鈴 (나)一片丹心 (다)자진打鈴 (라)날어오네 金玉眞 細笛 高載德 長鼓 閔完植
◇同九時 라듸오•드라마 자기몸을허버리자나희 二幕四場…金海雲作…(配役)河元根(失業者)…金海雲 朴英子(그의안해)…沈元子 金永植(그의친구)…金錦壽 黃氏(財産家婦人)…金仁子 尹愿順(그의딸)…朴貞介 崔大奭(辯護士)…李流逞 放送劇新人會 指揮 李如水 效果 孫一松

曆

七月廿四日(水) 陰六月(小)廿四日
辛丑•土•參•破
▲小暑 八日(陰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陰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陰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陰六月廿四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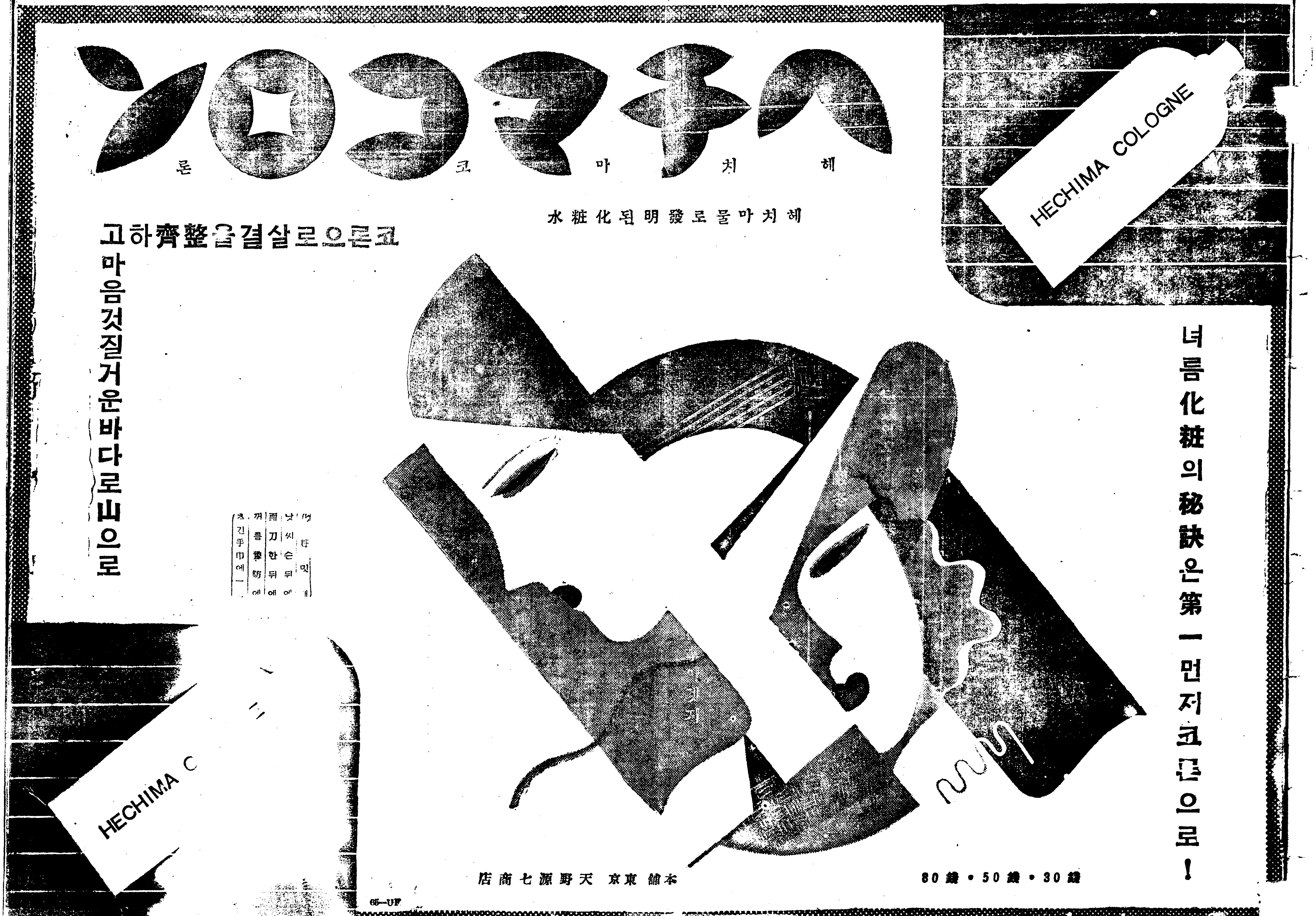
白 閔仲植
互先黑 丁奎春



【●一九三】子의十六
【○一九四】己의十六
【●一九五】庚의十九
【○一九六】乙의十二
【●一九七】丁의十五
【○一九八】丙의十六
【●一九九】戊의十五
【○二〇〇】己의十三
【●二〇一】庚의十五
【○二〇二】丙의十五
【●二〇三】壬의二
【○二〇四】辛의三
【●二〇五】乙의十一
【○二〇六】丙의十一
【●二〇七】乙의十
【○二〇八】丑의八
【●二〇九】丑의六
【○二一〇】寅의五
【●二一一】甲의十二
【○二一二】乙의十三

◇蔡極文氏評

白이 大勢를 推想하야 黑을 放擲하고 自其角을 先手로 修補하니 手段이 優越함을 覺悟하노라 黑白雙方에 境界를 已定하고 觀勢이 旣備하니 時局形便이 比較立場이다 殘局缺處에 末端收拾이 最急務인즉 精察細探을 宜加勉於持局初이라야 克有其終을 알지어다



이廣告는너름동안
保存하여주십시요

夏節에흔한胃腸病

注意하여야할 症狀과 治療

急性胃가다루

녯날부터 萬病은입으로들어온다고한바이것은 急性胃가다루에第一맛는말이다。그것은이 病이飮食物에原因되는것이만흠으로、特히녀름에는飮食物이 腐敗하기쉬움으로조금한 不攝生으로뜻하지못한失敗를招來한다。經過가조흐면 比較的빨리낫는일도잇스나、잘못하면慢性症이되고、무서운傳染病에걸여서後悔하지안흐면 안된다。한團體가沒死되는일도亦是이것이原因이된다 原因은暴飮暴食不消化物及脂肪分過食腐敗된肉類未熟한果일氷水삐ㅣ루、사이다ㅣ의過飮等으로된다 病狀으로서는食慾이업서지고 가슴이답답하며 구역나고터림나며發熱과胃痛난다 酷甚한頭痛이나고 嘔吐가나는일도往往히잇다 嘔吐後는一時便하게된다 이런때에는治療藥アイフ를服用식혀서身體를安靜케하고, 一日쯤 絕食한것이第一조타 배가압흘時는구운소금、뜸、懷爐等을대여서 따슴게하는것이 조타口渴에는뜨거운물에 입을추기고麥茶쯤하면그만이다 이리하야 充分히胃를쉬게하는사이에가다루도 自然히恢復되고만다 食慾이나드라도最初에는미음、스프、牛乳、葛湯等의 流動食부터始作하야、恢復이되면서漸漸、粥、鷄卵等의軟食에옴기여간다。그리하야數日間은더自重攝生하는것이조타。

慢性胃가다루

胃病中가장만흔病으로、普通胃가나뿌다는사람은大概이慢性胃가다루이다。따라서經過도더듸고、病人의苦痛도오래간다。原因은食事時間의不規則食事의咀嚼不充分、暴飮暴食氷水와아이스크림、찬삐ㅣ루、사이다ㅣ等의過飮、그리고過度한飮酒、기름진것、香味料、茶、커ㅣ피ㅣ、담배類를들수가잇다。

病狀은普通食慾不振으로、가슴답답、속이미슥겁고、터림만흐며 嘔吐가날時는胃痛을늣긴다。늘입맛이나부고、혀에는白苔가끼다。그로부터이病이잇슨즉몸에故障이만코、根氣不足으로일에실증나기쉽고、頭痛、肩臂痛、眩氣、耳鳴等이일어나며睡眠不足便秘가되기쉽고顏色이나뿌며、全身이衰弱하야진다。慢性胃가다루는往往胃痛、胃潰瘍의原因이되는것임으로、假使苦痛이적드라도充分히治療하지안흐면 안된다。그의 原因이될만한不攝生을一切廢하고、설사或은軟便이되기쉽은사람은治療藥アイフ又는特製アイフ를服用하고、便秘性人은加減アイフ를服用하는一方飮食에充分한注意를하야時間과分量을잘定하야、잘咀嚼하고、不消化物過熱過冷한飮食物、술、담배、香味料等은禁忌하지안흐면안된다。

急性腸가다루

이病의原因은大體로急性胃가다루와同一하야、暴飮、暴食、氷、麥酒、腐敗한食物、不良果物、宿冷、腸內寄生虫及胃가다루等으로부터생긴다。그런데반드시泄瀉를끼고 腹痛을 끼는것이普通常例이다。

泄瀉를하면一時痛症은난는다。뒤를보면곳또 매러운等、排便後重壓感으로 一日四五回以上數回에 及함으로、便은흙과가튼泄瀉便이오軟便이다。發熱、惡寒、頭痛이일며、腹部가 꾸륵꾸륵운다。여기에注意할것은虎列剌、赤痢等과의 區別노서、泄瀉와함께嘔吐된다、體溫의下降이甚할때엔、便에粘液、血液이석기고、發熱을낄때엔傳染病에對한疑惑도잇씀으로、速히 適當한處置을 하지안흐면안된다、急性腸가다루 갓트면、몬첨 第一노피마자油와갓튼泄瀉劑를服飮하며腸內의有毒物質을一掃식히는것이、가장理想的이다。그리고 하로동안만絕食하며 身體를安靜식히는것이 第一조타。治療藥으로서는アイフ를服用하며아울너溫濕布、유단푸、懷爐等으로서下腹部를덥게하고,口渴에는溫水또는麥茶를식혀,마시는것이조타。食物은溫水、葛粉、말긴粥、스프等으로腸에刺戟되지 안흘것으로撰擇하여恢復을기다려 徐徐히나아가는것이安全하다。

慢性腸가다루

慢性腸가다루의 大部分는急性腸가다루로부터 移行되는것이어서 外觀은比較的病體로보이지안치만 腸管內壁에는疵爛이생겨서 食事할때마다刺戟됨으로서 病勢는一進一退하여 數個月혹은數年에及하는일이만타、 그原因의大部分은慢性胃가다루와갓치腐敗한食物、不消化物、過熱過冷의 飮食物等이主動이되는것이외다。 그러치만食物은 낫부지안트래도、齒牙 가낫부든지、胃에病이잇는때엔食物의消化가不充分함으로써、 腸에서醱酵하여泄瀉하는일이만타。 症狀은食慾不振으로서 口渴을내며、食後에곳泄瀉를하는일이잇다。 大便은軟便又는泄瀉便이어서 一日二三回로부터五六回에이른다。腸痛、疼痛을끼고、 腹部에서꾸륵꾸륵소리가나고、 腹膨과放屁가만허서、身體衰弱하여顏色이낫부고、 神經過敏이되여 睡眠不足으로 苦痛받는다、慢性腸가다루는 身體의 營養을 害하는일이만흠으로 다른病에걸리기쉽다 特히肺患者는腸에 故障이잇게되면腸結核에걸리게된다 故로アイフ와가튼治療藥을 服用하여專心治療에 努力함과同時늘飮食物에注意하여 粥빵우동等을主食으로 스ㅡ프半熟卵、野菜煮、百合根等 脂肪性이적은 魚肉、生회等의軟한것을攝取안하면안된다。慢性腸가다루가잇는사람은 多季는勿論夏節에도腸部를덥게하는것이必要하다。 下腸部에懷爐를피든가、 布片으로싸돌이여두는것이조타。

治療에는누구나

アイフ

아이후

藥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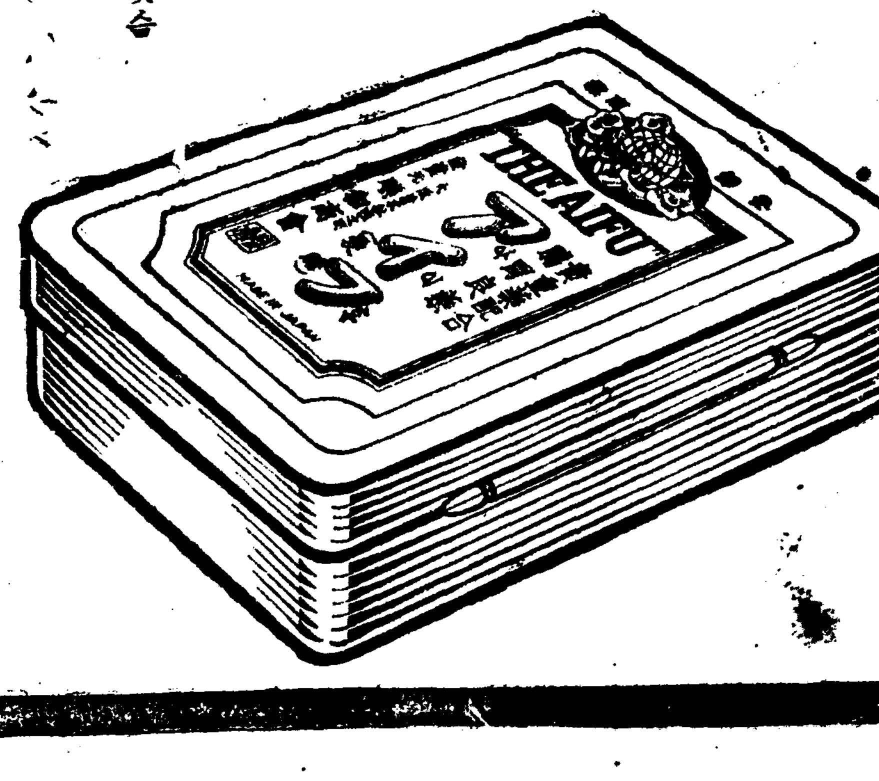
胃와腸의兩病에는アイフ(本劑)

三服入	四十錢	十七日分	[illegible]
四日分	七十五錢	四十五日分	[illegible]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價十一日分	五[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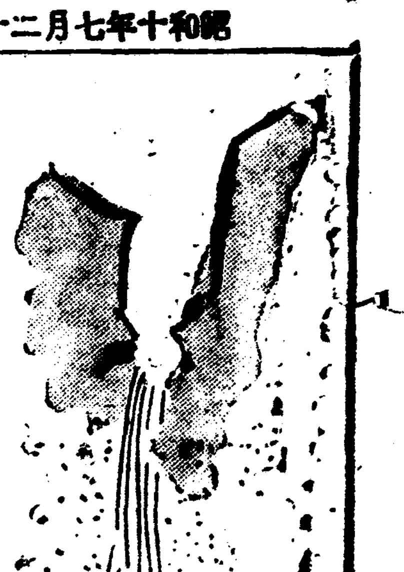
胃病專門에는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三百四十錠入	二圓
百六十錠入	一圓	千錠入	五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發賣本舖 頭和商會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振替 大阪 三四五番
電話(南)五〇〇〇・五〇〇一・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電話七六〇八番



出版界에 對한 提言

局外의 一學徒로서 ②

李軒求

現代朝鮮의 所謂讀者層 또는 知識階級이 새要求하는바 出版物-即書籍이란 그어떤部類에屬할것인가。여기 中等學校의 傳하는말에依하면 그들 中學生은 『킹』이나 『主婦之友』等의雜誌가 그多大數라는 다만話端밖지 못하다는

一慨嘆一 만에 그칠수 잇는 事實을發見한다 그러타고 吾人은 왜朝鮮文의 雜誌나 書籍을 읽지아니하고 日本內地의 書籍또는 雜誌 甚至於新聞까지를 多分히 읽게되는냐? 하는 根本問題에對해서는 充分한理由도잇고 그러케될 文化的情勢도 잇다는것을 推斷하리라 그러나 그러타고 一切의 文化的普及과傳達이 自文字를 通하지아니하고 異文字로 써代行되는 事實을 그대로傍觀하기에는 그러치못할 여러가지 問題에 接觸하게된다 一部어떤 人士는 朝鮮과가티 文化가뒤지고、또朝鮮文字와가티 表現하기에不足한語彙와 單純한言語로써는到底히 나날이 向上發展하는廣大한外來文化를 直接傳達하기에 도時間的으로나 努力으로나大端한困難과 不便과甚至於苦痛까지 를끼친다는說을 傾聽할 必要도 잇슬것이다 그리고 또어떤人士 와가티

一外來一 文化一切는 日文飜譯으로도 充分하다。오직朝鮮語、또는朝鮮文을 藝術的으로 生命잇게 하기爲하야는 創作以外에 方途가 업다고하야 外來文化의 飜譯은 一種事大思想에서 오는 弊習요 害毒이라는 實로 義憤에 넘치는 言說에 對하야서도 甚히考慮될 問題이다。假令愛蘭이 純粹한 愛蘭語로서의 文藝運動과 또는 英語를 通한 文藝運動과를 比較하야 愛蘭語로서의 文藝運動은 오히려 英語的 表現을 비는 文藝運動 보담은 勢力이 微弱하고 遲延을 持來한다는事實에 朝鮮과를같이 混亂當하는이가만일잇다면 吾人은 좀더問題의出處에對하야 또 그러한思考的行爲에對하야 깁흔 討議가잇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 愛蘭語라는 固有한言語로서 充分이表現하는것은第二로하고 愛蘭語를 完全히理解하는 作家는勿論 一般民衆도 며칠에不過하다는事實과 朝鮮과를 比較한다면 이런 처되懸測은 多分히訂正當하고 抹消當하여야할것이다 그러타고 朝鮮語의將來運命이라는 이

一問題一 를 여기서充分히 究明하기에는 그適任도 아닐뿐더러 이論題와는 多少隔離되는바잇슴으로더길게 云爲하라하지안커니와그러면 朝鮮文을通한 文化的出版事業 또는그行動은 그어떤範圍까지의規定과 限界를바더야될것인가? 나는 여기 一의卑近한例를드는 바이다。

外地異聞

著者를批判하는 『싸베-트』兒童

『모스코바發聯合郵信』무슨일에든지 批判的이라고하는 쏘베-트聯邦에서는 少年들이著書를批判하고 著者에게勸告하며 著者는이것으로서 今後의著作의 指針으로삼는것이 流行한다。그래서 쏘베트에서는 現在全國到處마다 圖書館이잇서서 學校以外의少年敎育에 充當하고잇는데이러한 圖書館에서는 著者가먼저自己의손 少年用의著書를 朗讀하고 朗讀이긋치면 少年들은討論을開始한다 그結果 그들의意見과 提議를모아서 著者에게提出하게되여잇는것이다。그리고그때로는 少年들이自己가 읽은것이나 드른册에關해서『빅、레뷰-』를쓰는일도잇다。이러한圖書館은全國各村에 數個는반드시잇스나 모스코바에는 四十三個나잇다。그중의하나인『우스야-ㄴ치』圖書館은 書册의數가一萬七千八百二十二册、利用兒童이 八千人이나잇서서 매우盛況인데 이런種類의圖書館은 모든少年들의 自治制度로되여잇는것으로서 때때로 열니는 講演會나 童話會가흔것도兒童들이 自進해서 開催하고 交涉한다고한다

다 假令 至今 夏期休暇를利用하야 歸鄕하는學生에게 一卷의 良書를推薦한다면 그것이 單純히敎育的偏狹한意味가아니고 깁흔感銘에 끌어갈수잇는 또그들이理解될수잇는 그런種類의 어떤册을 指示할것인가? 여기對하야 困惑을 느끼지안는敎育者가잇다면 우리는 스사로 이런疑問을가지라는自身의 幼稚性을 비웃기도하려니와 그러나 이것은 敎育에關心하는一般人士의愛慮되는바 그

一重要一 한하나이다 그러나 내가여기 그서말하는名著라는것은 朝鮮語로서飜譯되엿거나 또는著述된書籍을 指稱함이니 果然 우리는그런 良書를 우리손으로 맹그러가지고잇는가?

만일 文藝書籍을 愛讀하는一靑年에게 우리는서슴지안코 沙翁이나 괴-테나、유고오나 杜翁의어느著書를 推薦하리라 勿論그러한文學靑年에게日譯의이들 文豪의名著로서 그들은 그作品이 가진바思想과感情의洲一된 崇嚴한새로운世界를 發見할것이다 여기에는 現在朝鮮人으로써 中等程度의敎養을 바든자로서는 可能한事實이다

그러나 만일 그(文學靑年)에게 그러한作品을 읽은뒤 그

一作品一 에서感銘된바에依하야 다시새로운 創作의길로 나가라할

에 그에게 第一 부닥처지는難關이란 또困難이란 무엇이며어대잇슬것인가?

人造心臟뒤에오는것

生物學界異狀잇다。

카렐博士硏究完成

〔뉴-욕發聯合郵信〕先月末世界의 生物學界 醫學界는『린데-버그氏人造心臟完成』의報에 놀낫는데 이硏究는 地上에 네리鳥人이鬼才 아렉시스·카렐博士의 指導를바더서 完成한것으로서 지금에 共同硏究室의책상에는 고양이、닭에서 끈허내인 子宮腸、脾臟、腎臟等이 硝子瓶에드러잇서 人造心臟으로부터 補給되는 피로 保養되면서 獨立해가지고 生命을 保持하고잇다。『카렐』博士는將來이것으로서 松果腺、腦下垂體、甲狀腺等을保養하고 그分泌되는 『홀몬』에對해서適確한 硏究를進捗식히는一方 各內臟의 罹病狀態를 現實的으로目前에보면서 硏究해가려고한다。

元來이『카렐』博士는廿八年前에 心臟의一部를끈허서 人工培養을 하는데成功하야全世界學界를驚倒식힌 일이잇섯는데 그心臟의一部는아직도博士의研究所의一隅에서의 眞實한食料로保養되면서 『바다리안』와完全히 隔離되여서 지금도生存을 繼續하고잇는데 將來도이와가치 繼續하면 永遠히 生存해서 不死細胞의 標本이되리라고한다 動物機關의 人工培養에 成功한것은 그후에도 개고리의 心臟에 二月의 記錄이잇고 로시아에서는 개머리에 人工輸血을해서두時間을 지난일이잇섯는데그동안에는 눈을뜨고 食物을 보히면 입을열어다고한다。

東京農業大學의 夏期講習

農業科學의 原理와 應用의知識을普及하기爲해서 東京農業大學의 農業敎育硏究會에서는 農業學校、師範學校、小學校等의敎員과 農業技術員及 實地家의夏期講習會를 오는 八月一日부터 同十日까지 每日 五時間式 同大學에서 開催하겟다는데 講習料는 一科目三圓으로부터 五科目七圓까지의等級이잇스며 特히大日本農會 農業硏究會員은 特典이잇다고한다。그리고 申込場所도 亦是同 農業大學인바 申込期日은 八月一日까지이며 講師는 農博、三木泰治外八人이고 講習科目은 耕種要說、農化學、養蠶畜産、農業經濟等中에서 細部의各科로 난호아잇다고한다。

新刊紹介

▲東京朝鮮民報 第十三、第十四 東京市芝區濱松町四의二 東京朝鮮民報社發行 定價一部五錢

▲婦選 七月號 東京市麴町二十三의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京七〇三六三番 定價十錢 送料五厘(和文)

▲朝鮮文壇 第四卷四號 編賢文 京城府堅志洞一四二(北星堂內) 朝鮮文壇社發行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樂界의權威者를網羅한

夏期音樂講習會

●特色은個人的敎授●

科目及講師

◇피아노科……金永煥·金元福
◇바이올린科……洪蘭坡·桂貞植
◇聲樂科……金文輔·朴榮根
◇理論講義……(課外共通科目)
◆音樂鑑賞法……洪蘭坡
◆發聲法의科學的硏究……朴榮根

時日 七月二十五日부터 八月五日까지 十二日間
▲午前部 午前九時부터 ▲午後部 午後二時부터
場所 明日發表
定員 各科二十名
會費 一科目에三圓(會員이면 他科目의 傍聽은 隨意)
申請 七月二十四日까지 『朝鮮日報學藝部內音樂講習會後援係』로
主催 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古建物巡禮 (11)

五營中에獨存한 禁衛營

湖岩

京城은 五百年古都이니만치 옛날은 五個軍營이 잇서서 守衛하여섯다 그러나 滄桑의 變을 보게된 오늘날에 와서는 五營의 軍士는 벌서 업서진지 오래고 五營의

建物까지도 남아잇지못

하다 그中에어찌다가 禁衛營이 홀로 殘存하야 現李王職雅樂部가 되어잇다 그러치만、雅樂部가 되기는 大正十五年 以來의 일이요 日韓合併後 恩賜授産場이 되여섯고 일즉 韓國時代에는 鎭衛第一聯隊營이 되여섯고 그前에는 後營이란 軍營이되엿섯는데 甲申政變에

三日內閣을 組織할때에

朴泳孝가 前後營使左捕將兼漢城判尹으로 任命된바 前後營使의 後營은 곳 이禁衛營이니 이때는 禁衛營을 廢하고 그대신에 이곳에 새로 後營을 設하야 朝鮮舊式兵六百名이 잇섯다 그리하야 當時日本操鍊을 바든 前營(現大和町憲兵隊官舍)의 兵五百名과 아울러 前後兩營이라 稱하엿섯다 그러면 禁衛營은 언제생긴것이냐 하면 시방으로부터 二五三年前인 肅宗八年壬戌(一六八二)에 처음으로 이곳에 設置된것이다 다만 禁衛營의 建物에잇서서는

同營의設置 와그同時에

되것인지 그年代를 可考할수 업지마는 어째든지 오래되엿슬것은 想像키 어렵지안다 禁衛營은 肅宗때設置된지 二百三年만에 高宗二十一年甲申(一八八四)에 이르러 廢止됨에 미처서는 비록 禁衛營이란 名稱은 업서젓스나 上述한바와가티 時代를 따라 後營、鎭衛隊營이되여 이러케 軍隊解散前까지는 兵營이되여온것만은 事實이다 禁衛營이 본대訓鍊都監(近衛兵營)과 扈衛營(宿衛兵營)과 御營廳(黃海京畿以南守備兵의本營)과 總戎廳(京城及京畿守備兵營 後에北漢守備兵營)과함께

五營의하나 이니禁衛營

의任務는御營廳의 任務와 마찬가지로 黃海京畿 以南守備兵의 本營이엿든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五營이 오늘날에 와서는어떠케 變遷하엿는가·訓鍊都監은 東大門警察署와 漢城銀行東大門支店의 터전이 되여섯고 扈衛營은 京城醫專病院의 터전이 되엿섯고 御營廳은 標草專賣局工場의 터전이되엿섯고 總戎廳은 洗劍亭普通學校의 터전이되엿섯스니 참말글자대로

滄桑의變을 일우엇섯다

이들의 建物이 現實界로부터永久히 그姿態를 감추고 말엇지만 오즉 禁衛營의建物만이 依然히 남아잇서 綺麗한 녯날歷史를 말하고 잇슴은 보는이로 하야금 懷舊의 感을 일층더깁게 하는바잇다 더구나 거긔잇는 李王職 雅樂隊는 由緖깁흔 由來를 가진 東洋古樂의 精粹로 確實히 朝鮮文化의 자랑거리의 하나이 될뿐이라 二百數十年동안 軍隊를 두엇든 營門이 오늘날에 와서는樂隊가잇는

古典藝術의 大殿堂으로

化하엿슴은 滋味잇는 對照가 된다 우리는 今後에 이雅樂이 아못조록 잘保護되고 잘發揮되어 世界的으로 널리紹介 되엿스면 하고 그윽이 心祝하야 마지안는다 어째든지 禁衛營이 雅樂部가 된것은 이 古建物에 對해서 一大光彩를 더하는感이 잇다 이建物이 過去에잇서서禁衛營으로서의 보담 今後에잇서 雅樂部로서의 터

만흔効益을 社會나民族

에게 기처주리라고밋고 십흐다 雲泥洞九九番地 李王職雅樂部는最後로 남아잇는 東洋의古樂이 異常하게도 最後로 남아잇는 京城의古營을 복음자리로 하엿다 古建物도 古建物이어니와 雅樂이매우그리운다

黑風 (83)

韓龍雲 作
金熊超 畫

초연 7

학교로부터 도라온 왕한은 더위를 이기지못하야 양복 저고리를 벗어걸고 수건으로 땀을 씨즈며 안젓는대 체전부가 편지를 전한다 왕한은 것봉을 뒤처서 콜난의 편지인것을 알고 반갑게 떼어보앗다

『선생님 보오지 오라 옵시다 날이 차고 더워집니다 공부를 하시기에 얼마나 곤곤하서요 공부를 과도히 하시면 건강에 해가 되답니다 때때로 운동도 하시고 산보도하서요 선생님의 말슴하시든사랑하는 녀자는 자조 만나시겟지오 멀리 축복합니다 그러한일을 생각할때에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나종에는 괴롭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위하야 고통하는것만은 용서하야 주서요 감히 선생님의 사랑을 바랄만한 적당한 인물이 되지못하는것은 잘 알고잇지마는 또는 선생님을 위하야 고통하는것이 아모 도음이업슬것을 알지마는 그리하면서도 고통을 하게되는것은 저스스로도 엇지할수가 업습니다 아모리 사랑의 표준이놉흐신 선생님 이실지라도 그것마은 용서하야 주시겟지오 만일 저로하야금 선생님을 위하야 고통할만한 자유도 주지 아니 하신다면 아름다운 달빗을 따라서 끗업시 가고십습니다… 날이 더웁습니다 하기방학을 리용하야 피서를 가랴고 합니다 선생님『나이아가라』폭포를 구경하서요 저는 나이아가라폭포로 피서를 가랴는대선생님 미안하지마는 가치가실수가 계실는지오 저는 아즉어린애라 그러한지 혼저 다니기가 무서워요 만일 선생님이 만가시기가 거리끼는곳이 잇다면 선생님의 말슴하시든 선생님의 애인을 다리고 가신대도 무방합니다 무론 저로서는 선생님의 애인과가치가는것이 다소의 고통이 아니되는것은 아니지마는 선생님을 모시고가는 큰 위안을 밧기 위하야는 그만한 적은고통은 참지아니할수가 업습니다 선생님 저의 마음은 한가지(一枝)의 기또릴 나무도 업는 고비사막을 넘어가는 적은새처럼 의지할곳이 업습니다대삼림(大森林)인 선생님이시어 적은가지 하나를 빌리실수가 잇슬는지오 모든 실례를 용서하야 주서요 읽간에가서 뵈옵겟습니다』

이러한 콜란의 편지 내용의 단정한 처녀의 질문을 읽은듯도 하얏스나 그것은 나이어린 이만치 교제에 대한 훈련이 적어서 솔직한 자긔의 마음을 그대로 쓴것이오 다를뜻이 아니엇다 그러나 그보다도 조회에 녀치는것은 자기에 대한 왕한의 뜻을 철저히 알고저 한것이어다 다시 말하면 전일에 왕한이 가말하든 적당한 녀자라는것이과연 자기를 의미한것인가 실로 다른 녀자가 잇는가를 자세히 알기 위한것이엇다

콜난은 왕한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고대하다가 이튼날 저녁대에 왕한의 답장을 바덧다

『글월은 감사히 바덧습니다그새이에 가서 뵈옵지 못하얏습니다 용서 하서요 나이야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일즉이 한번 보기를원하얏습니다 동행하는것을 용서하신다면 질겨서 모시고가겟습니다 간다면 물론나의 애인을 다리고 가겟습니다그러나 그녀자가 콜난씨의 눈에보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터고 나의마음으로만 다리고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른바동정호의 달빗가튼그얼굴 크도적도아니한 그체격그대로 를터럭하나도 빼지아니하고다리고 가겟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달빗 아래에 선다면 그림자가 셋이 되지는 아니할것입니다 그리하야 콜난씨에게 고통을 주지는 아니하겟습니다 거친말을 용서하서요』

콜난은 왕한의 뜻이 어대잇는것을 확실히 아랏다 그편지를 한번 두번 세번을 보고도 오히려 손에 노치를 아니하얏다 콜난은 마음에서 나오는우슴과 입설에서 드러가는 우슴이 중간에서 마조처서 그의가슴은 약간 뛰엇다

新日本의傑作品

그 倆格은 舶來品의
뗏은 씽거-미싱과同一

約半値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PMLTD

國産蛇目미싱을

新日本의傑作品

國産 蛇目미싱은萬國標準型인故로모든部分品도 世界到處에서隨意로살수잇습니다 特히我社東京、大阪兩工場에서年産額은巨額에達하고從業人員은四百名今也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製造會社가되어잇습니다

優秀 國産品으로特히型는씽거-미싱과同一하고價格은外國品의約半額이되는것도國産인때문입니다、지금은『外국도틀르하다』는評判을어더海外各國으로터러더러輸出되는國産미싱의最高位를占하고잇습니다。

全鮮進出을爲하야
一郡一店의代理店을
急募함

本社는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會社이오그事業은 其히將來性이만흔것입니다。卽一個의事業을計劃하는경우에提携할것은最良의相對者가아니면안됩니다。本社는 午前六時事業의先導에서서『明日이잇는會社』로그最適任이니貴下의期待에十二分으로相副할것입을確信하는바입니다。

늘어가는것과 提携하시라

代理 店은本社의店先代表者인故로本社에서는今回全鮮으各地에區域을制定하야代理店을募集함에際하야도事業에身命을다하야長久히提携하시기를約束할수잇는眞摯한분을求합니다。

希望하시는販賣區域

一郡 에一店에標準삼는故로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年賣上豫定數及特定價格詳細히回答하겟습니다代理店希望者는大阪支社朝鮮代理店係로

東京·大阪
國産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全鮮總代理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市電黃金町入口下車向鐘路西側九軒目)
發賣元 萬稔商會京城支店
電話光化門一七三五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피와살이되는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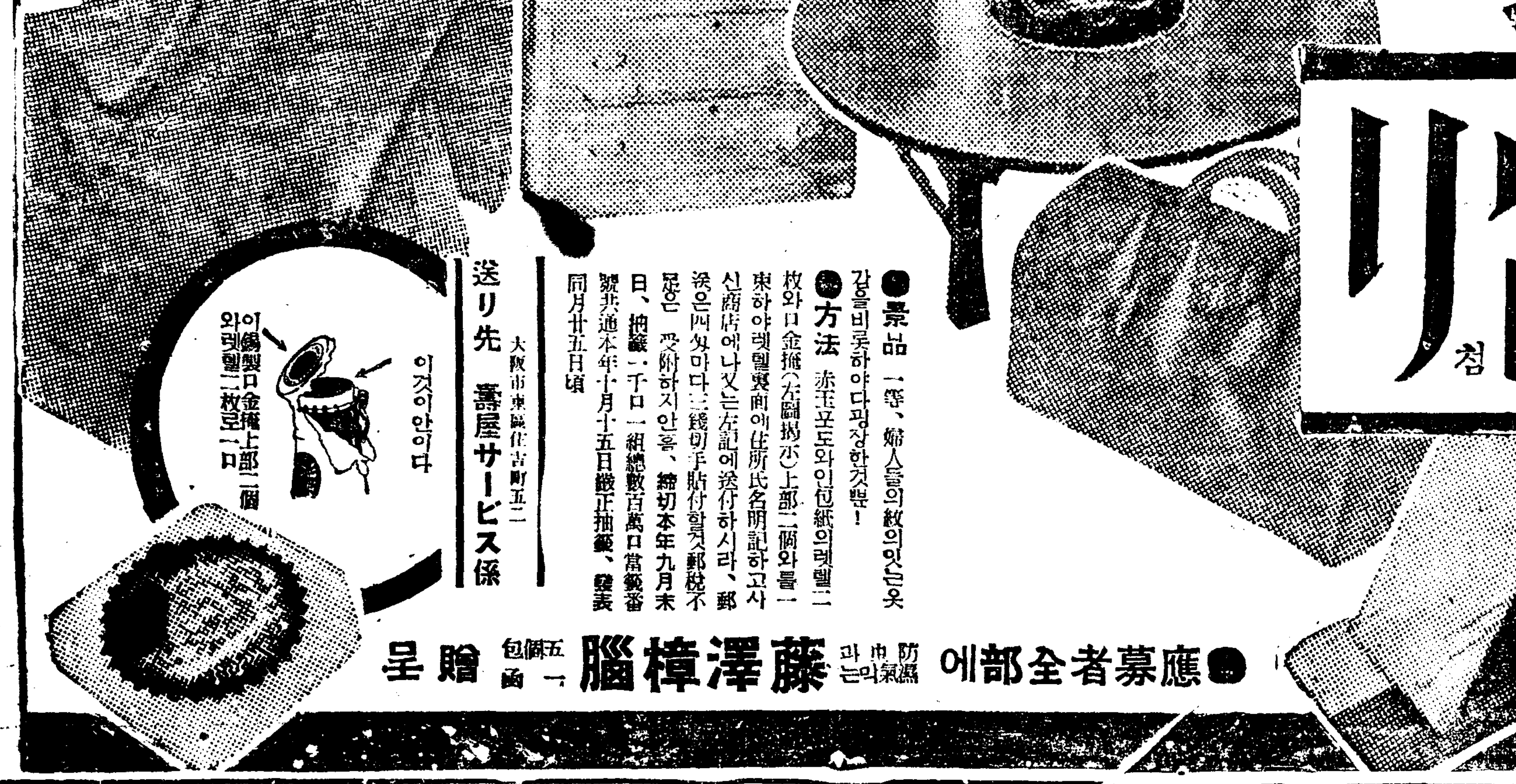
포도와인

空籤업는

大景品總當リ

첨

二瓶으로



●景品 一等、婦人들의紋의잇는옷감을비롯하야다과광장한것뿐!

●方法 赤玉포도와인包紙의레텔二枚와口金摘(左圖揭示)上部二個와를一束하야레텔裏面에住所氏名明記하고사신商店에나又는左記에送付하시라、郵送은四匁마다三錢切手貼付할것郵稅不足은 受附하지안흠、締切本年九月末日、抽籤·千口一組總數百萬口當籤番號共通本年十月十五日嚴正抽籤、發表同月廿五日頃

送リ先 大阪市東區住吉町五二 壽屋サービス係

이것이안이다

이錫製口金摘上部二個와레텔二枚로一口

●應募者全部에 藤澤樟腦 (防濕防虫과는) 五個包 一函 贈呈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每日申報

中央無盡協會

共濟無盡株式會社

福德無盡株式會社

興業無盡株式會社

共立無盡株式會社

朝鮮中央日報

型錄進呈

煖房・衛生・水道
工事設計請負
輸入製作販賣

極端인모ㅡ던의意味가안이라
嚴冬雪寒이던지
酷暑熱炎이던지
恒常室內는陽春氣分
이것이文化의恩惠며
合理化된生活標準이겟지

蒸氣煖房裝置
溫水煖房裝置
換氣通風裝置
給水給湯裝置
衛生淨化裝置
病院消毒裝置
炊事洗濯裝置
製氷冷凍裝置

杉山製作所
京城竹添町二丁目一三
西大門局私書函第七號
電話光長一八一・五四五
振替京城一〇一七二番

大連支店
大連市紀伊町三一
電話長三五二四

奉天支店
奉天千代田通三六
電話長三一四七

新京支店
新京大經路一五
電話長五七一一

明治菓子와喫茶
明治製菓賣店
京城府本町二丁目

그女子의一生 (166)

春園 作 夕影 畵

방랑편

「영자언니가 왜 그러깐」 하고 금봉은 영자가 그 조혼 남편—임학재와 기튼 남편을 만나가지고도 무엇이 불만해서 그러나, 하엿다.

「왜 그러까、는 무엇이 왜그러까야?」 하고 올남은 신이 나서、「도야지에게 구슬을 준 심이란말야. 영자가 제게는 분에넘는 남편을 만낫거든。영자헌테는 십상태따위가 꼭 알맛는단말야. 집신에는 제 날이 격이라고。그런데 올바는 웬 일인지 영자를 과대 평가를 해요 영자를 무슨 끔즉히 조혼 여자로 알아요。날보고도 저 영자를 보아라、어떠케 얌전한가하공。그야 내야 미친년이고 영자야 얌전이야 하지만도 얌전이면 그만인가 왜? 그까진 얌전이야 날더러피우라면 멧 갑절 더 피울걸 무어、안그래、금봉이? 그런데 오빠는 영자를 과대평가를해가지고는 조혼 신랑 하나 망처버렷지。임이 아모리 잘낫기로니 저런 여편네를 데리고 행세를한답」

「왜 언니도 그 혼인을 권하엿다면서」

하고 금봉이는 올남의 말이 더 듯고십헛다。

「권하긴。내야 심상태나 주라고 그랫지。그러다가 이왕 혼인이 다 되고보니 할수잇나? 그래서 멀렁대고 한참 심부름을 해주엇지」

하고 올남은 속에도 업는 말을 한다、하고 잠깐 양심에 붓그러웟다。

「날더러 잠깐만 하나님노릇을 하랫스면 바로잡아 노흘일이 만컨마는」

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한숨을 쉬인다。

금봉은 우스면서、

「언니가 하나님이 되면 무엇을 바로잡겟소?」

하엿다。

「바로잡읍게 수수만만하지마는 그중에도 당장에 바로잡을것이 잇단말야」

하고 저도 제 생각이 우수어서 한바탕 웃고나서、

「자 들어바요。우선 임허고영자허고는 떼어서 영자는 상태나 우리 올바를 주고、임학재는 리금봉허고 혼인을 시키고 숙히는 조병걸허고 부부가되게 하꼬、십상태는 도로 제 어미 벳속에 집어너코、순선생은—에 그만두어」

하고 쓴 웃음을 웃어버린다。

「그리고 언니는?」

하고 금봉도 킥킥 웃엇다。

「나는? 내야 이대로 두지 어더케하나?」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글세 나? 나는 서정희허고 둘을 한데 뭉처서 밥에 갈라나 노호까」

하고는 마음이 괴로운드시 시무룩한다。

한참이나 두 사람이 다 입이 써서 말이 업다가 금봉이가、

「그런데 언니는 인제 어떠케하실라우?」

하고 정성스럽게、또 근심스럽게 뭇는다。

「나?」

하고 올남은 눈으로 어듸 먼 곳을 바라본다。올남의 눈은 결코 심상한 눈이 아니엇다。가느스름하고 쌍가풀이 지고 사람을 꿰뚤는 빗치 잇섯다。더구나 그가 시무룩해서 허공을 바라볼 때에는 그 눈에 위엄이 잇섯다。그 얼굴도 아긔자긔하게 엡브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빗도 희고 흠할 곳은 업는 편이엇다。다만 오랜 동안여성답지아니한생활을 하엿기 때문에처녀다운야릿야릿한 맛이 업고흠은종각과 가티엉그럭스러운빗이 잇지마는그래도 어느구석엔지 모르게 엄전하고 으젓한데가 잇섯다。인제는 비록 금봉이나 다름업시 세말에팔리는 신세가 되엇지마는 금봉이가보기에는 올남은 다른 여자 동무들모양으로 야멸치지도 안코 야살스럽지도아니하고 인정이잇고 칼로벨때에는 베어도 상냥스러울 때에는 무척 상냥스런고 미듬성잇는 사람이어다。

「나? 나도 무엇이 될찌 모르지。그저 아이들헌테 실흔소리나 하고이럭저럭 살아가지」

하고 담배 한대를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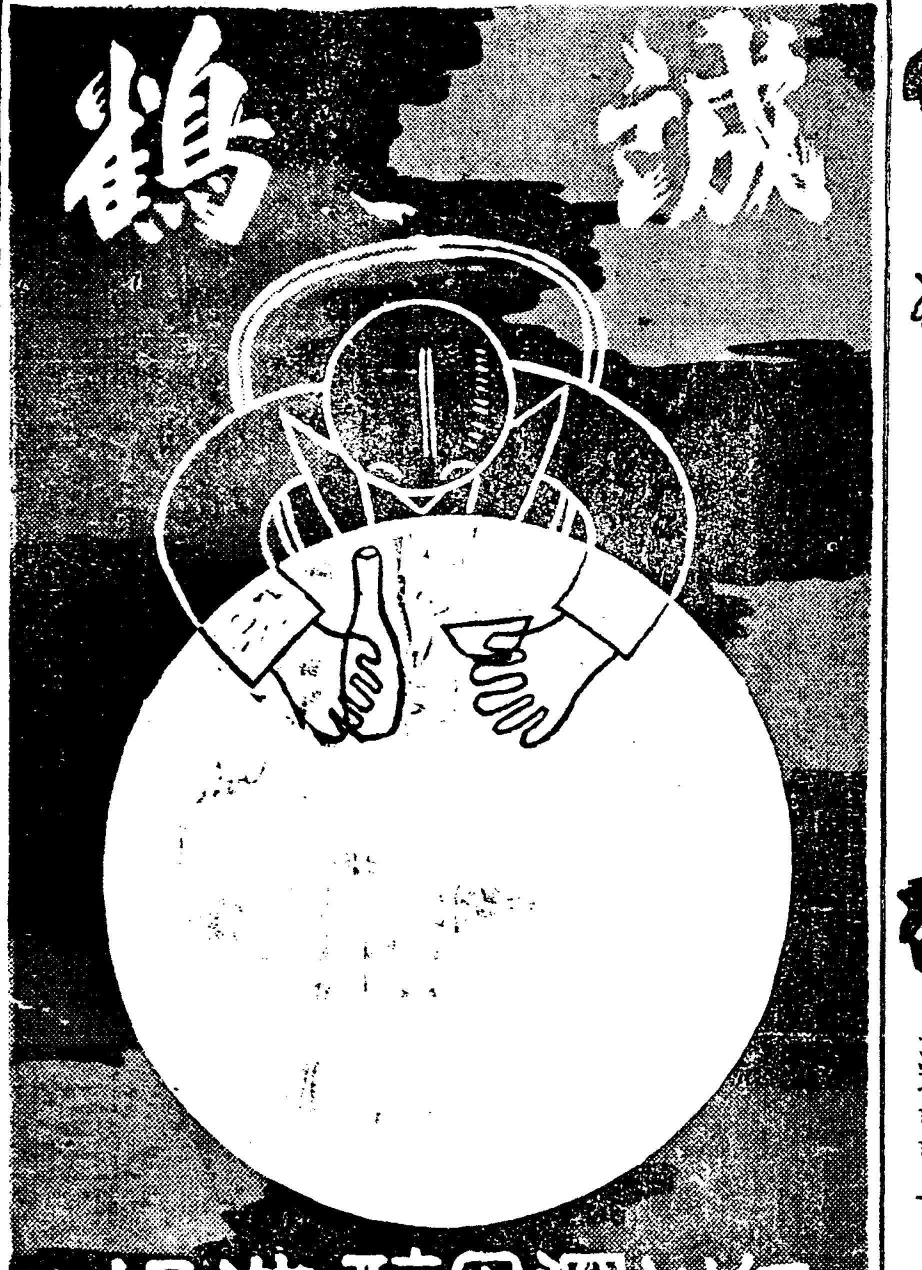
「언니는 마음에 먹은 남자가 업스시우?」

하고 금봉은 한걸음 더 파서 뭇는다。

「흥。그런 소린 왜물어?」

「아니。언니가티 저러케 조흔 여자가 왜 아직도——」

하다가 금봉은 뒷말을 엇이무라고 대치 몰라서 말을끈허버렷다。



仁川深見釀造場

痔 면은自宅에서 オセロ(오세로)痔疾藥
¥.30 ¥.50
各地藥店에잇슴

천하일품

이것이야말노 세상에 둘도업는 우리생활에 가장필요한물건입니다 모ㅣ든 음식을 맛잇게하는 아지노모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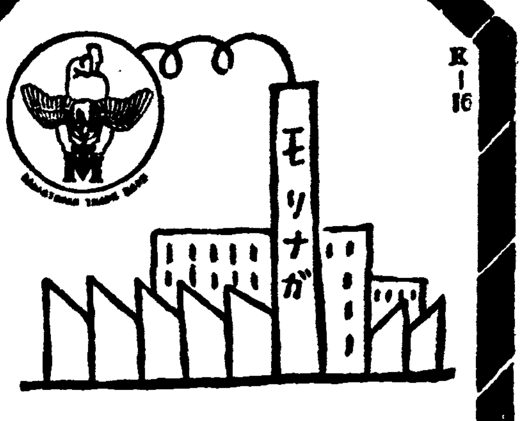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조선요리법」(정가五十전)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7-T

K-16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모리나가미루구갸라메루)

第四回キャラメル藝術作品募集中・〆切七月三十一日!

五錢・十錢

森永製菓株式會社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黑髮美는女性의자랑!

頭髮洗粉화왕샴푸로써때때로씨츠시면黑髮의老衰를막으며、一層빗나게하는唯一한秘訣입니다。

화왕샴푸는가장進步된洗髮料입니다。때、비듬、가려운것을除去하며獨特한美髮劑로서頭髮의成長을돕습니다。

有名百貨店、雜貨店에잇소

M8168

長髮一回分 斷髮二回分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SA-17

涼味

거품넘치는
유리컵의魅力
꿀맛가튼味覺
은이……一杯!

サッポロビール (삿뽀로삐—루)

アサヒビール (아사히삐—루)

朝鮮麥酒株式會社

◇七月二十三日부터特別大公開
낮……一時
밤……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합니다!
◇大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로이드의活動狂 全十卷
監督……크라이도・프락코만氏
主演……하롤드・로이드氏 곤스단스・가민크스孃
◇오래동안기대하시든로이드에爆笑篇
◇이야말로痛快하고우숨기에더위가사라질만한興味百%에名喜劇이올시다……
◇新興キネマ社超特作映畫
時代劇 旅は郎か 仙太の仁義 全十卷
監督……貳伸 二氏
主演……櫻井勇氏 花房銀子孃
次週‖二十六日부터……
男便을죽이기까지 全八卷
暴風警報 全八卷
動物報告 全四卷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七月二十日부터超特別大封切!
(晝夜三回)
콜럼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후랑그카뿌라ㅣ氏大作品!
그날밤의眞心
巨星와ㅣ나바그스타ㅣ氏 妖花마ㅣ나로이孃主演
古今稀有의大競馬를背景으로神妙를極한情緖纏綿篇!
콜럼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西部劇
原作、脚色、監督란바ㅣ드히리아氏
爆彈존스
壯漢박크존스氏一生의大熱演
助演다이아나상그래아孃
古今初有의冒險篇中의金字塔!존氏獨特의冒險技能을總發揮한一生一代의大活劇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千葉泰樹氏監督
燕お瀧
久野あかね 富士幸三郞主演

貫鐵洞 電光 三○
優美館

爲替安定은反對 低金利는景氣恢復

❶ 옥스포드大學 헨더손氏論文

國家的利害關係로 爲替安定을 主張하는 根據를要約하면 大體如左하다

×

一、過去三個年의英國의景氣恢復은 國內市場에限定되엇든것

二、從하야이以上發展될 可能性이적고 他面 何時 反動이올지 모르는것

三、이以上의 健全且永續的인景氣回復은 海外貿易의 復興에 依하여야할것

海外貿易復興에 第一로 必要한것은 爲替市勢의 安定이다 라는說에對하야 나는 爲替安定은 國內景氣의 恢復趨勢를 危殆케하고 激烈한 反動을 齎하리라고 생각한다 國內景氣의 回復이라는것은 第一로、重要視하여야만 할嚴然한 事實이오 그것을 出現케한 條件만 維持되면 決코 그發展의限界에 達하얏다던가 或은 이以上進하면 基礎의 不健全한것으로 되리라는 理由는없다 그런데 一方 爲替安定이 輸出貿易을 顯著히 刺戟하느냐 하면 그것은 非常히 困難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簡單히 말하면 爲替 安定을 여기서하는 것은 새 두마리가 잡힐듯 하다하야 손에잇는 한마리까지 날려 보내는것과가튼 危險한것을 하는것이다. 먼저 손에잇는 한마리 새부터 檢討하자.

×

나의 생각으로는 「스타-링」과 金과의 새이에 確定的比率이 업섯던것이 最近 英國의 景氣恢復의 本質的條件이다. 그럼으로서 數年에 亘하야 躊躇업시 低金利와 金融緩慢狀態를 維持할수잇섯던것이다. 低金利가 英國의 景氣恢復에 本質的要素이엇던것은 一般的理由이엇섯다. 그러나 더욱注意하여야 할것은 低金利政策이 長期間에 亘하야 繼續되엇던것이 低金利의 恩惠를 充分히 與하얏다고 하는것이다 萬一 英蘭銀行公定利率이 二分이엇슬 期間이 數個月식繼續되어도 其間에 資金流出을 阻止하고 「오픈·마켓·오페레-숀」으로 高金利를 만들어 割引利率이 四分으로 引上되엇던 期間이 介在하엿섯다면 比較的 無益이다. 그러한 條件下에서는 近年 金融事情을 改善케한 有價證券市場의 殷實한上向은보이지 안엇다. 低金利가 斷續的으로不安定한 것이엇다면 低金利가 短期金利로부터 長期一流物의 利廻에及하고 長期一流物로부터 長期金利一般에 及치는안엇슬것이다 그리고 事業界는 겨우 一時的刺戟을 受함에 止하얏슬것이다

×

過去三個年에 萬若 金에「스타-링」이 相結되어잇섯슬것가트면 英蘭銀行 割引利率引下의 必要에 切迫하얏슬때가 顯著히「스타-링」이 强하얏슬때 反對로 弱해서 困難하얏슬때가잇섯다 爲替平衡資金이 設定되어 될수잇는대로 爲替變動을 制限코저 하얏스나 事實은 相當히 爲替가 動搖하얏섯다 그러나 그래도「스타-링」이 金과 相結되어잇섯더면 政府는 이動搖를 阻止키 爲하야 割引利率變更을 하얏슬것이다「스타-링」은 過去一個年에 十二%低落되엇다 勿論 이에는 金本位國에게 자못 不利하얏섯지만 이것은 萬若 英國에서 十二個月前에 그때의 市勢로 창황히「스타-링」을 金과 相結하얏섯더면 最近 數個月은 이미割引利率의 昂騰을 보앗고 信用量이 制限되엇슬것을 暗示하고잇다

×

『로빈스』教授는 現在 英國에서는 金利가 異常히 過低下되어잇다고 생각하고잇는데 나의解釋이 正當하다면 彼는爲替安定이 割引利率을 引上케 될것이라하니 됴타고 생각하나 나는 그것에 贊成할수업다「스타-링」이 金과 相結되어잇섯더면 明白히 割引利率引上을 必要로하다고 생각한다 今年一月에 事實引上하얏다고 假定하면「로빈스」教授나 其他의 사람들은 果然히 景氣 恢復力이 그때에 나타낫슬 것이라고 생각하얏슬가? 나는 割引利率이 引上되엇더면 明白히 事業界의 反動에 遭遇하얏스리라고 생각한다。『로빈스』敎授가 低金利의 不可避的結果라고 보는 이反動을 가리켜서 低金利過度의 不可避的結果라고 자랑스럽게 說明할지 모르나 多幸히 金에 相結되지안엇던 때문에 景氣는 再次 恢復되고 그 發展하야 現在는 아즉國內市場에 依한 景氣進展限界에 達치안흠을 示하고잇다。(續)

紛糾의鮮航同盟會 四分五裂潰滅直面

運賃問題落着을尙遼遠視 朝郵도脫退動意濃厚

旣報한바와 가티 鮮航同盟會의 紛糾는 더욱惡化되고잇는바 內部的으로는 割戾問題를 中心하야 有力會社의 同盟脫退가 擴大되는現狀이며 外部的으로는 荷主側 對運賃問題等의 難點이 엉크러저잇서 그解決이 漠然한터이다 이미 尼崎의 同盟脫退가 決定되고 그뒤 岡崎、澤山、飯野等의動搖가잇섯다가겨우머물너잇게되엇는데 이번에는그의支柱인 朝郵까지 動搖케되야 重大決意를 한다는등 鮮航同盟은 將次四分五裂의地境에 일으게될 形勢알에잇서서 그前途가 자못注目된다고한다

尼崎 脫退飜意勸誘 그러나實現性薄弱

尼崎汽船에서는 鮮航同盟會脫退에對한 鮮航會側으로부터飜意勸說에 對한 態度를 二十二日 同盟會에 對하야 正式으로 回答키로되엿든바 二十三日에 回答을 延期하엿다 그러나 脫退飜意는 目下에는 實現의 可能性이 업다고 觀測된다

尼崎汽船 脫退의事情 淮田船舶主任談

鮮航同盟會脫退問題로 現地와協議次 入京中의 淮田尼崎汽船 船舶主任은 脫退事情에關하야 알에와가티말한다

尼崎가 同盟會를 脫退한것은 阪神、仁川航路에만 吾社가 配船하는데 仁川荷主가 不穩을 決定한때문이라고 一部에서 말하는모양이나 이것은 그러한것이아니라 尼崎가 脫退케된것은 同盟會가 四月運賃交涉不成立後 對荷主態度가 매우 强硬하야 모두荷主에 對抗的態度를 取하엿슴으로 吾社의 精神과 相反한때문이다 그럼으로 脫退後의 吾社는 어데까지 荷主本位의 營業方針을 取키로 하엿다 脫退後도 吾社는 現在의 七隻朝鮮配船은 그대로하고 一切 增配치안흘터이며 運賃도 同盟會와 同率運賃을 嚴守할 생각이다 그리고 三個月의 期間은同盟會의 規約을 직히기로 하엿다 그러나 同盟會에서 排他的으로 吾社에 對抗케되면 吾社도 이미 對抗하야 抗爭할생각이다

移秧九割六分餘 湖南만依然不進捗

七月廿日現在水稻移秧狀況

【廿三日總督府着電】七月二十日現在水稻 移秧狀況을 調査하면 七月十日까지 移秧完了치안흔 南朝鮮 諸道 特히 全羅南北道는 繼續하야 降雨가적엇슴으로 移秧이 進捗지 안는다 即 七月二十日 現在移秧終了 面積은 百六十二萬 千八百八十九町步로 今年移秧 豫想面積의 九割六分三厘에 相當하고 六萬千五百二十五町九反步의 移秧未了이엇다

道	移秧豫想	移秧終了	同上比例	未了豫想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糸基準減産率 聯合會가緩和決定

【電通東京電話】製絲聯合會에서는 二十二日 上野의 精養軒에서 小委員會를열고 統制、減産率緩和와 輸出振興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基準減産率은 十割에 對하야 各四%緩和로 今後一年間은 四三%로 할일 從來輸出하는 會社에 對하야는 標準製造高의 二分五厘를 五分으로 緩和할을 決定하고 八月一日로부터 向一個年間 實施키로되엿다

텍사쓰事業變更

移入申請을當局却下

텍사쓰石油 京城支店에서는 從來 大連으로부터 揮發油와 重油의 輸入販賣를 하는터인데 이번 事業計劃을 變更하고 이것을 日本內地에서 移入하겟다고 總督府에 申請하엿는바 이것은 石油業法에 依하야 現在 輸入業者로 認한 텍사쓰의 資格이 消滅케 될것으로 商工課에서는 斷乎히 右申請을 却下키로되엿다 그런데 텍사쓰의 大連을 更하야 日本內地에서 移入의 事業變更 原因은 問題의 滿洲國 石油統制 實現으로 因한 同社의 大連事業收縮에 잇고 그反面 日本內地에서 移入하면 石油業法에依한 朝鮮內保有義務를 日本內地에서 綜合負擔할수잇다는 二原因에基한 것인모양이다 그럼으로 텍사쓰의 申請에도相當한 理由도잇서?따가 때인만콤 複雜하야 이樣間如何가注目된다

蠶絲生産販賣 六月中皆增加

【電通東京電話】蠶絲協會調査에依하면 加盟十社의 六月中의 生産高는 一億四千五百七十七萬二千封度 이에對한 販賣高는 一億四千五百九十六萬六千封度로서 販賣率은 一〇八%를 示하얏다 그리고 이것을 前日에 比하면 生産高에잇서 七、五%販賣高에잇서 一、九%의各增加이엇다

南阿羊毛 斷乎賣附拒絕

【神戶電話聯合】昨年來 南工房의 特令에 依하야 南亞弗利加就航船의 往航雜貨引上運賃過剩金으로 配定制에 依한 差額을 塡補買付中이던【南亞弗利加羊毛는近來大國配定 制에 朝載되어 極度로 昇騰하야 昨年度 濠洲羊毛와의 價差 三十圓에 比하면 今年度는 一磅五十二圓乃至六十二圓으로 約二倍의 高價를 示하고 南亞弗利加政府는 日本品에 對한 關稅의 大幅引上을 行하고잇슴으로 日本雜貨業者도 到底히 同國羊毛의 購入을 繼續하기는 不可能하다하야 今後는 斷然購入을 中止키로 決定하얏다

經濟界消息

○漢銀定期總會=漢城銀行은 卄三日 午前十時부터 同行에서 第六十回定期總會를 열고 三分配當案을 可決한뒤 營業課支配人 張友植氏를 取締役으로 選任하엿는데 同氏는 常務로 現職을 兼務할터이라고

朝鮮春繭市場

▲廿三日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高價	低價	平均
七、十七	明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十七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十七	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十七	明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阿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九	明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九	西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九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九	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	驛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生産費會 無結論散會

外地米生産費審議 ◇…廿三日小委員會에서

【電通東京電話】米穀生産費調査 會第五回小委員會는 十三日午前十時首相官邸에서열고 朝鮮、臺灣兩總督府에서 提出한 外地米生産費에 對한資料에對하야 審議하엿스나 何等結論을 엇지못하고正午에散會하엿다

伊國 名目的金本位

最近對에디오피아紛爭으로 軍事費支出不可避

【羅馬二十二日發聯合】伊國의紙幣流通高에 對한 法定金準備率은 四割로 定하엿든바 伊國政府는 二十二日 右條項의 停止를 發令하고 四割以下로 내렷다 이것은 最近 에디오피아와의 紛爭으로 因하야 多額의軍事費支出을 不可避케할 形勢로 되엇든때문이다 그래서 伊國의 金本位는 獨逸과가티 全然名目的의 金本位로되엿다

東阿遠征達成코자 金準備停止英斷

【羅馬二十二日發聯合】法定金準備條項 停止에 關聯하야 伊國政府는 全然 對外支拂의 必要에 基한다고 强調한바 從來頑强히 리라貨의 面目價値를 維持하든 伊國政府가 從來의 對策과 全然 背馳되는것으로 이것은 못솔리니首相이 에디오피아國 討征에 對하야 强硬主張을 表明하는 事實에 徵하야 못솔리니首相은 다시 어떠한 犧牲을 하드래도 東阿遠征의 目的을 達成할 決意를 堅固히하야 法定金準備停止의 英斷을 한것이라고 한다

四割以下의 金準備法令 ◇…二十二日에公布

【羅馬二十二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彪大한對外支拂에 應키 爲하야 伊太利銀行의 金準備率을 四割以下로 引下키로 決定하고 二十二日 다음과가튼法令을 公布하엿다 伊太利銀行은 一時 金準備를 四割以下로 引下할을 得할것으로함

金本位停止說

【電通羅馬廿三日發】二十二日夜 歐洲數個國의首都에서 伊國의金本位制停止考慮說이 傳하는바 羅馬의 關係側에서는 이照會를밧고 緊張되엇스나 日下羅馬의消息通間에는 右報道를 承認할何等의 事實도 안보인다고하야 아즉 全然不明하다

産鉛生産制限 國際協定完了

【電通倫敦二十二日發】確聞한바에 依하면 歐洲市場에 鉛을供給하는 各國産鉛業者는 今後相互의 諒解가업스면 鉛의 生産力을 增加치안키로한 國際協定을 結成하고 二十二日 그署名을 完了하엿다

商況 (廿三日)

株式 一高後에 瓦落

前場小高

今前場은『스릴』四十弗四分三으로 續好勢、米棉高等外電이조아 少高寄後東新百三十八圓四十錢 日産七十圓二十錢에까지 올라 買人氣이고 結局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九十錢高인 百三十八圓三十錢 日産一圓高인 七十圓丁 大新八十四圓十錢 朝新二十五圓五十錢에各大引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瓦落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五十錢 日産七十圓四十錢에 少强寄後 買進失敗로 反落止가 東新百三十六圓臺、日産六十九圓臺로 瓦落이엇슴으로 當地도 一齊急落大引

再落을難免? 大揉合의少堅

『스릴』高로 米國景氣好轉氣味이라는것外에는 이러타할것이 업고 財政正常化力說로 明年度 豫算編成이 어찌될지 依然陰鬱空氣이며 先般來買安心의 反動高市勢를 내인뒤이라 突込賣警戒로 幾分底堅味가 잇다가 今朝再高를보고 再擡의 準備로 볼수잇

東新百圓割說

昭和八年一月에『인푸레』景氣를 樂觀하고 極度로 買하고나서 昨年十一月에 一時底入되고 今年五月發會까지 金利低 歐洲風雲急迫에依한日本의 漁夫之利豫想、平價切下로 中國問題好轉等 모든것을 買材料로하야 艮의天井을지은株인즉 정말下落百圓割이잇서야할 것으로 一般人氣가位置寂寞을 思케되는만큼 市勢는 그裏面으로나가서 意外의 瓦落이잇고야말것이라는것이 大彌氣의 主張이엇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七	五一	五〇、一四〇
東新	四一	五二	七八、八四〇

强弱兩陣主張

▲强氣=이미二個月이나 實眼하고나서 下落되엇든市勢이니 이以上賣附餘地가업다 그리고北中의 經濟開發、日滿經濟블럭工作等으로 이方面에적어도一億圓以上의 資金需要하고 四圍事情으로볼지라도 財政을縮少할수업고 多少 膨脹을難免이며 또 軍部가急進派를 排斥한結果 穩健한 態度로되엇스니 好轉될것이다

▲弱氣=藏相이 健全財政을堅持하고 赤字減滅에 注力하는以上이미『인푸레』는 지나간것이오 이와가튼 軍需膨脹은 必然的으로增稅를 伴할것이고 또 貿易은各國의 日本品排斥으로 逆轉傾向에잇다 紡績人絹等 商品供給過剩과 株式資金缺乏은 대단하야 이壓迫이 容易히 一掃될것이아니다 即『인푸레』市場의 反動整理時代인즉 市勢의 大勢는 下向이다

東株代用價格改正

【電通東京電話】東株에서는 二十二日 小委員會를 開하고 委託證據金으로서 代用價格改正의 件을 審議한 結果 如左히 實施키로 되엇다

時價暴騰에 依하야 代用價格을 引上한것은 公社債及 電力株의 一部로 五十二種에 達하고 低落에 依하야 代用價格을 引下한것은 人絹株 其他 四十四種이다

日本鋼管會社 吸收合併完了

【電通東京電話】日本鋼管에서는 直系會社인 川崎窯業吸收合併과 昭和鋼管會社의 吸收合併을 完了하얏슴으로 二十二日에 右에關한 臨時總會를 開하고 合併案을可決하얏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六十枚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滿洲工廠 [illegible] ▲證券金融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金剛電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今場은株式高와 相俟하야 買人氣이오 內國債及佛貨十錢買進이며 米貨도甲利邊로 五分半一圓七十五錢高로 新高値에 買進되엇다

▲甲五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四分利不申 [illegible] ▲佛貨四分利 一八七、〇〇

今日財界 (卄三日)

◆米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情勢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金	[illegible]	[illegible]
大新	三四	五四 七六、〇〇〇

期米 水害憂慮 反騰

前場反撥

昨後場阪地三十錢高인 [illegible]

後場頑强

後場은 二十九圓三十八錢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錢九十二錢인 一丁低寄後 一丁低寄하고도 水害憂慮의 買氣가 旺盛하야 二十九圓三十七錢인 九丁反高로 二十九圓〇四錢에 止했을 伴하야 三圓五十三錢으로 結局四十六錢에 據合止하엿다

天井? 押目? 市勢中途彷徨

日本內地는 土用의 好天候를 靜觀할 뿐아니라 當地市場의 買方主力側이든 田中貞一派가 軟化함에따라 阪地 其他各地가 一齊瓦落을告하자 强硬하든 當地도 六十丁의 反落市勢를 演出하더니 今朝에入하야 阪地는 僅히 十丁反高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水害憂慮의 買氣가 熾烈하야 三十餘丁의 突高를示하엿다 果然軟派의 主張하는바와 如히 阪地三十一圓四十二錢과 當地二十九圓八十錢이 今年度의 天井이되고 말지 硬派의主張하는바와 같이 昨日의 低價가 絶好의押目이 될지 市勢는 中途에서 彷徨할뿐이다 十二錢은 最高公定米價에 接近한 時勢임으로 그 以上의 昂騰을 期待키 難할것갓고 在米의 漸次 稀薄한 點으로 보아서는 그以上의 新高値를 示할것도갓다 이와가티 市勢의 向할바를 確斷키 難하나 그러나 市勢의 大體로보면 아즉도 高價를 남겨노앗다하여도 過言이아닐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南朝鮮雨不足

中部는물騷動

今回의 中部地方이 最多하야 四百五六十粍의 夥多한 降雨를 뵈여 降雨量을 觀測할 뿐아니라 이 雨量이 水害의 念慮가 有하리라함으로 定期界의 不無하다하야 買氣를 助長한다 이와가티 雨量이 過度함에 反하야 旱地인 忠南、全南地方은 二三十粍에 不過

各地正米

京城同調

頭上의 模様을보

【大阪電話】賣方 東京側 中側 正米側 地場弱氣側 買方 神戶側 地場强氣側 株式側 朝鮮側 臺灣側 正米側

堂島前場情報

仁川保合

當用의 買氣가 잇스나 賣物이 업고 閑散裡에 保合인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釜山奔騰

市場出廻 二千叺이 緊迫으로 一般 移出側의 買付態度 依然히 緊張을 이엇다 賣物이나 突込買向치안코 依然取引은活潑에 依하야 當用向에도 取引이 견딜 强調하야 ◎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大邱昂進

所持의 買氣鍛錬 強度固持로 取引不振이오 據制하야 無活閑散의 市況으로서 場商은 極度의 品薄狀態에 陷하야 配는十錢高인 角ㄱ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群山下押

定期의 氣崩으로 場面賣物이 넘쳐 賣氣가 一層旺하고 場面은 下押하야 ◎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廿錢

木浦同調

品薄을 目標로 當用側의 買氣가 잇스나 賣物이 極度로 閑散하야 丸木多이 取引이 안되고 市況의 場面이라 四等卅圓九十錢 雄町三等卅一圓十錢 四等卅圓六十錢 四等廿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 東新이百三十八圓臺로 日産이 七十圓臺로 少强하야 좀 買氣가 생긴모양▲그러나 本格的好轉이라고 飛付하야다가는 賣叩될念慮가 不無▲日本이 國際聯盟을 脫退하얏슬當時에는 世界各國의 經濟界가混亂中이엇든데 現在는 그것이 恢復되엇는지 日本에對한 壓迫이 漸次强大▲埃及의 通商條約廢棄도 그러하나라고 할수잇다▲紡績業의 高級化가 必至로보이는 此際 埃及棉不買에까지 發展한다면 日本貿易

米

上相當히 打擊이 클것▲世界에어되서던지 大戰爭이 이러나 闕心이 日本品進出問題로부터 떠나지안는限 株界의安心은 不許이라는말이잇다

▲勿驚!仁川의雨量은 四百五六十粍 그러나 旱地의雨量은二三十粍에不過▲植付를 完了하지못한地方으로서 雨量도 不足하거니와 時期의 關係로 植付를하엿자 晩時의 歎을 免치 못할모양▲그러나 日本內地及朝鮮 全體로 보아서는 豊作을否定하지는 못할것이며 實收成을 하지안홀수 업는걸▲그러치만 在米가 極度로 稀薄하야 渡米의 準備가 困難한

此際에 賣買成 하기도 亦難▲當地 鮮 取引 底의 賣物은 三期를 通하야 三萬 石은잇슬모양▲그런데 그賣物은 同店의白衣東의 某有力派의所有로서 容易히 換退할것이아니라고 商談이區區▲果然賣米를渡하지못하는때는 乘替買에 갈모양이라나 그러면 新米時代에入하야 勝捷을奏하게될듯▲果然同店의 버티는 氣勢는 참으로 壯觀인걸▲同店의 態度를輕視하다가는 後日의 杞憂를自促함이나 無異하다고某軟派는主唱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六五

金融 (廿三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融 [illegible]

◆大阪金融 [illegible]

◆內外國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三日)

◆朝鮮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三日)

◆京城綿絲布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飼料肥料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 [illegible]

株式 期米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吉村取引店 仁川本町三

期米 (廿三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場期米 [illegible]

株式 (廿三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長期實物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